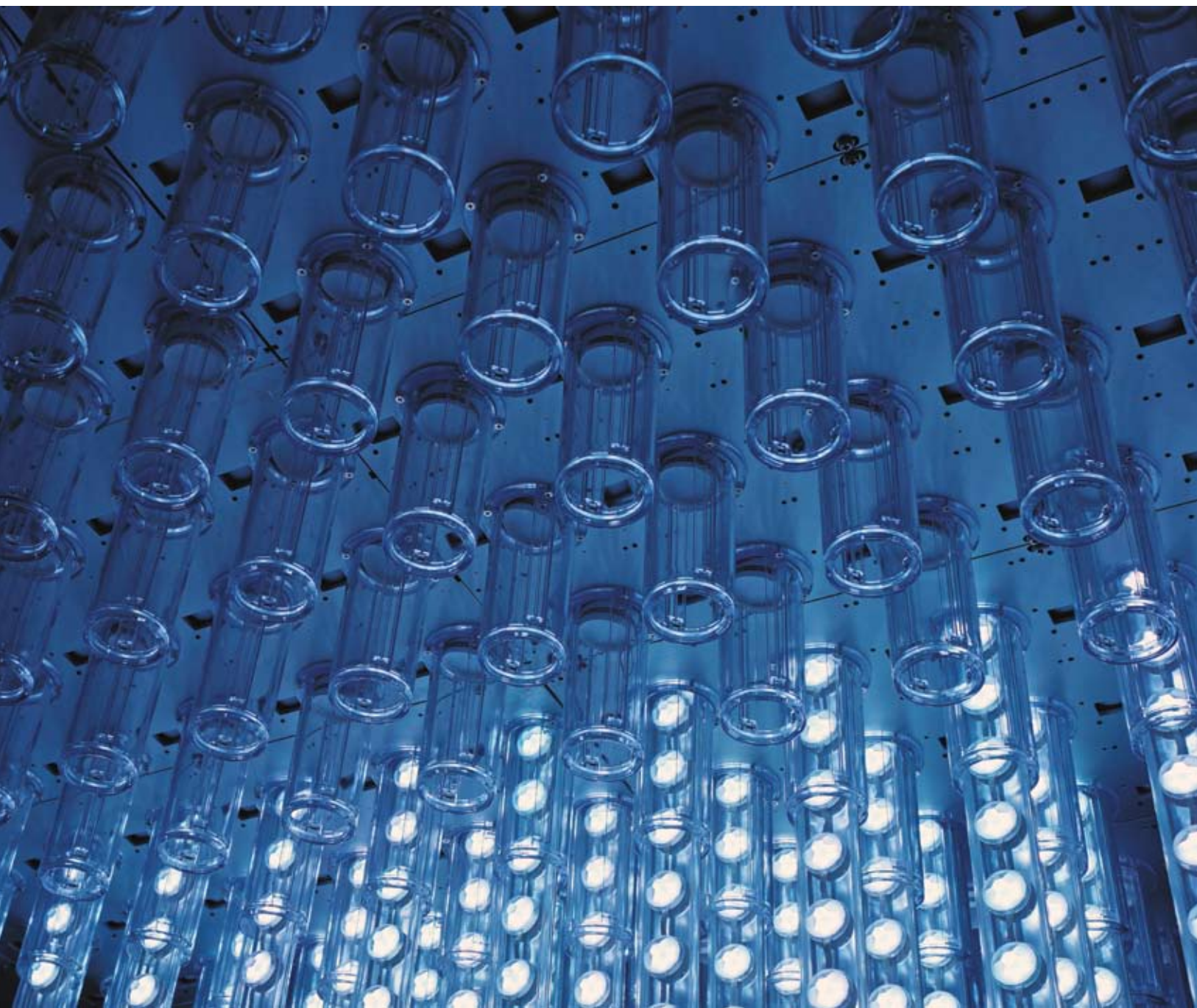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매거진

Q+세익

2014 _ 여름 통권 37호





02 표지작가를 만나다 _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 | 송창희

힐링, 가끔 느리게

08 그림으로 듣는 음악 에세이 _ 힐링비 | 송준석

12 〈인터뷰〉이 사람의 힐링 _ 드니스 라인하르트 | 도경민

크리에이티브 힐링

18 문화, 힐링이 되다 _ 자유의 여행, 캄보디아 | 강리나

22 공간, 문화를 나누다 ① 프랑스 _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한 루브르-랑시 | 지영호

26 공간, 문화를 나누다 ② 독일 _ 라히프치히 슈피너라이 | 박희봉

또, 함께

30 길떠나기 _ 이야기로 만나는 세종대왕 100리길

32 숲길 _ 오래된 미래를 품다 | 상당산성권

36 물길 _ 세종대왕 꿈을 담다 | 초정약수권

40 들길 _ 이야기 따라 걷다 | 증평권

44 충북의 젊은 예술가 _ 서예가 이희영 | 박소영

C-컬처 3.0

50 〈통합청주시문화브랜드를 찾아서〉 | 변광섭

54 구술채록 아카이브 | 이병수

60 2014 제1차 C-컬처포럼 | 이병수

64 〈어렴풋이 옛 기억이 나겠지요〉 | 이재표

70 문화재단 소식 | 편집부

74 청주·청원 문화예술 소식&리뷰 | 김민정

C-ART

씨앗, C-ART는 청주의 <C>, (Creative)의 <C>, 씨앗의 <씨>, 그리고 아트(Art)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 뜻을 정리하면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려 움트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세상을 꿈꾼다는 뜻입니다.



표지작품
목진요
[브릴리언트 큐브] _ LED



뒤표지작품
목진요 [브릴리언트 큐브] _ 6×5m _ LED

발행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360-80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Tel 043) 219-1017 **Fax** 043) 219-1234
www.cjculture.org
발행인 이승훈(청주시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편집인 안종철(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사진 문상욱, 송봉화, 원범식, 육성준, 정광의
기획·편집 변광섭(문화예술부장), 오희
발행일 2014년 7월 21일
디자인 (주)이노파트너스_한진옥 043) 225-1231

표지작가와 만나다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

글 _ 송창희 / 사진 _ 원범식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

고향 청주를 응시하다

브릴리언트 큐브 · 하이퍼 매트릭스 등 유명

목진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미술관, 뉴욕 첼시미술관,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등의 전시 경력과 작품 소장. 세계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꼭 남기는 홍콩의 샤넬 매장 건물과 여수 엑스포 현대차 전시관의 화제작 ‘하이퍼 매트릭스(HyperMatrix)’를 만든 사람.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는 충북 청주사람이다.

해외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해온 그가 국내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은 지난해 가을 서울 강남역에 설치한 ‘브릴리언트 큐브(brilliant cube)’다. 가로 세로 6m, 높이 5m의 투명한 사각형 공간 안에 설치한 LED 모듈 576개의 기둥이 빛을 뿜어낸 현대자동차의 의뢰 작품이었다. ‘자동차가 고객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겠다’는 현대차의 글로벌 캠페인 ‘리브 브릴리언트(live brilliant)’의 하나로,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또 2012년 여수 엑스포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선보인 ‘하이퍼 매트릭스(HyperMatrix)’라는 작품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절로 일으킨 화제작이다. 30cm×30cm 크기의 큐브 3848개가 벽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줬다. 이 작품은 디스플레이 전체 크기가 45m, 높이 8m. 상상초월의 대작이었다. 벽면이 움직일 때 마다 전시장 안에 울려 퍼진 꼬마 관람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어린 관람객들의 흐뭇한 미소를 이끌어 낸 여수 엑스포 최고의 작품이었다.

▲ 하이퍼 매트릭스

2012년 여수엑스포때 선보인 30cm×30cm 큐브 3천848개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벽. 전체 길이 45m에 높이 8m인 사방의 벽이 움직이며 다양한 모양을 형상화해 큰 화제를 모았다.



평면디자인 넘어 ‘움직이는 디자인’에 꽃히다

“미디어 아트요? 사실, 그런 장르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그저 디자인이라는 것이 너무 평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저런 고민 속에 얻은 것이 움직이는 디자인이었어요. 미국에서 제 작품에 매료된 사람들이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명칭을 붙여줬죠.”

청주 청석고를 거쳐 홍익대 미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시간강사로 일하던 1995년, 그는 영화 ‘천국보다 낯선’의 포스터를 맡게 됐다. 영화포스터에 디자인을 접목시킨 최초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잠시. 버스정거장에 설치돼 있던 영화포스터 벽보판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니 다른 포스터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 그 평범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홍대 앞에서 막걸리를 진탕 마시고 “나는 오늘부터 디자인을 안한다”는 디자인의 절필(?)을 선언했다.

이 때부터 그의 고민이 시작됐다. 뭔가 더 시각적으로 주목을 받는 디자인을 연구하다 인터넷 페이지에 스틸이미지를 엮어보니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래서 HTML, 자바 등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닦치는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디자인이라는 예술에 움직임(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배움에 한계를 느낀 1998년, 그는 무작정 미국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날, 뉴욕대에서 웹아트를 공부하다 만난 한 친구가 그의 작품세계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실제 적용하면 실물로 재현할 수 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듣고 LED, 전자회로, 뮤직박스 등의 전자기기에 자신의 작품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의 졸업작품이 미국 현대미술의 중심인 휘트니미술관에 전시되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됐다.

8년 만에 돌아온 한국…‘미디어 아트’ 개척

그러던 중, 제주도의 한 기업에서 작품제작 요청을 해 미국생활 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되돌아 보면, 미국에 간 것도 무엇에 떠밀리 듯 갔고, 한국에 올 때도 그렇게 무언가에 떠밀리 듯 왔다. 마치 운명처럼. 2006년 한국에 돌아온 후, 홍익대 초빙교수로 지내다 2010년부터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지금 ‘단순하면서 직접적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짓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화려하게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분수를 지키며 정직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현대사회가 문화적 감동을 강요하기도 하고, 뭔가 관객들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관람객들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흥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 느낌이 오는 그런 작품. 작가와 관람객은 그저 다른 직업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 ‘더 뻘하고 더 직접적인 쉬운 예술’이다.

▼ 브릴리언트 큐브

가로 세로 6m, 높이 5m의 투명한 공간 안에 576개의 LED 기둥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색채의 빛을 발산한 작품. 지난해 서울 강남역에 설치돼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다.





“굉장한 곳” 보는 순간 매료된 옛 연초제조창

예술과 기술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터라 사실, 그동안의 고향 청주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그가 요즘은 종종 청주를 찾는다.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보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한 충격을 받았고, 청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청주의 고민’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생각 중이다.

“청주에 와서 옛 연초제조창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에 매료 되었죠. 정말 굉장한 곳이에요. ‘이 공간은 나 정도로는 안되겠다. 내 분수만큼 한정 지으면 모를까.....’ 이런 말을 되네였죠.”

그는 ‘만약에 이 공간이 나에게 맡겨진다면’이란 상상을 해보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지막히 흘러나왔다고 한다. 내로라 하는 해외 여러 명소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많은 문화공간을 둘러봤지만 옛 연초제조창이 지니고 있는 매력과 경쟁력은 세계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다.

또 그가 최근 작업하고 있는 5m 짜리 LED폴과 이동형 키보드를 설치해 테크놀로지적 움직임과 빛을 보여줄 새로운 작품을 그의 진짜 고향인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계곡에서 선보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 곳에서 농부 아저씨랑 어린 아이들과 그의 작품 속 키보드를 눌러보며 행복감을 함께 만끽하고 싶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아트 한 작품의 가격은 매우 높다. 그것은 예술과 기술, 심지어 물리까지 독파해야 하는 어렵고 험난한 단련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과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목진요에게 돈을 쓰면 아깝지 않다”는 것이 한국 미디어 아트 시장의 개척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자신에게 사명감과 함께 ‘과거를 살리면서 현재를 찍고 미래를 향하는’ 문화도시 청주의 고민을 풀기위해 청주를 응시하고 있다. 치열한 서울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처럼 만나는 고향 청주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있다. 

힐링, 가끔 느리게



힐링비(Healing rain)

글 _ 송준석 / 그림 _ 김윤희



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변하게 된다. 선부른 일반화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예술 작품들에서 묘사되거나 배경이 되는 ‘비’는 시대와 인물을 막론하고 작가들을 감성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800년대 후반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렌의 시 <거리에 비 내리듯>의 정서와 1900년대 말의 한국 가수인 김현식의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의 정서는 놀랍게도 같다. 헤어진 연인, 고독함, 빗바랜 회상, 눈물 등이 ‘비’하면 떠오르는 감성적인 정서들이다. 하지만 ‘비’를 소재로 한 모든 작품들이 늘 조용하고, 고독하고, 우울한 것은 아니다. ‘비’가 만들어낸 그런 정서를 오히려 즐겁고 경쾌하게 표현한 명곡들이 있다.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니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랠 불렀지 니가 즐겨 들던 그 노래
중략.....

언제나 즐겨 들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 갈꺼야

- 김창환 작사·곡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경쾌한 랩으로 시작하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는 이제는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김건모의 데뷔곡이다. 비가 오는 밤에 청승맞게 기타를 튕기면서 헤어진 연인이 좋아했던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다. 역시 헤어진 연인에 관한 노래이긴 하다. 하지만 이 노래가 다른 ‘비’에 관한 노래들과 가장 다른 것은 마지막 가사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 갈꺼야 ~~~’ 그리고 이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나오는 김건모의 가사 없는 즉흥 애드립은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이 노래의 백미이다.

비가 그치면 헤어진 연인을 다시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것이다.

베를렌과 김현식은 그냥 비가 와서 고독하고 슬픈 것으로 끝이었는데, 능동적인 김건모는 오히려 빗속의 고독함까지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그 카페엔 초콜릿색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그 가로등불 아랜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마치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 강인원 작사 ·곡
 강인원, 권인하, 김현식 〈비오는 날의 수채화〉



1989년 〈비오는 날의 수채화〉의 OST로 발표된 곡이다. 젊은이들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멜로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박재용 감독의 작품이다. 이후에 만든 〈엽기적인그녀〉〈클래식〉 등의 작품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멜로적인 감수성과 서정적인 OST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굉장한 가창력의 3명의 남자 가수가 각기 다른 색깔로 만들어낸 하모니는 가요 역사상 가장 히트한 남자 트리오 곡을 탄생시켰다. 또한 ‘비’하면 생각나는 〈비처럼 음악처럼〉의 김현식이 권인하, 강인원과 함께 목소리를 맞추었다는 것 또한 ‘비’와 고 김현식에 대한 추억에 빠지게 한다.

이 곡의 가사는 필자가 느낀 ‘비’에 관한 노래 가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독특하다. 비오는 날에 그리는 수채화에 사랑에 대한 슬픔이나, 그리움, 고독감, 상실감이 아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유토피아를 그리고 싶다는 가사이다. 그런데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운 가사임에도 곡은 느리거나 슬프지 않고 아주 경쾌하다. 마치 비가 온 뒤 느끼는 시원함, 청량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빗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없다. 빗소리는 그 빗물이 어느 곳에 떨어지거나 따라서 소리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그런 것 같다. 우울한 마음에 떨어지는 비가 아니라, 필자의 추억과 감성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 한국에는 미세먼지, 황사, 대기오염 등으로 숨막히는 하루가 많다. 이런 것들을 씻겨 내려줄 비가 기다려진다. 필자가 노래를 들으면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다. ☔

송준석 음악감독

뉴에이지 피아노앨범 〈Another Day〉로 데뷔하였고, 2집 〈Make A Wish〉는 본격적인 힐링뮤직 피아노 앨범이었다. 이후 영화음악 감독으로 〈수상한 이웃들〉, 〈블라인드〉, TV 애니메이션 〈신 머털도사〉 등의 음악 감독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윤희 (SaMo:사모)

서양화를 전공하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다. 〈현대해상 갯안굿 어린이 C보험 광고영상〉, 〈삼성화재 2012 가족 걷기여행 캘린더〉, 〈마시멜로 두번째 이야기〉, 〈안개의 저편〉, 〈카윌라워브 표지〉, 일러스트작업을 진행했고 7321디자인 러블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있다.

이 사람의 힐링 드니스 라인하르트

글 _ 도경민 / 사진 _ 원범식



청주, 그리고 직지를 사랑하는 외국인 청주대 드니스 라인하르트 교수



도경민(이하 도) _ 안녕하세요 드니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Denise(이하 D) _ 네, 저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워요.

도 _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주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고, 현재 청주에서 무슨일을 하시나요?

D _ 네, 저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출신이에요. 원래 전통 연극을 공부했고, 런던에서 신체극(physical theater)을 전공 하였고, 그때 배웠던 신체극을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구요. 제가 하는 연극은 라코크(Lecoq) 연극이라고 불러요. 라코크 연극은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내포해요. 움직임이라던지 가면 같은, 그리고 공간과 관련있는 신체 움직임 등이 있어요.

도 _ 그럼 청주에는 얼마나 계셨었나요?

D _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도 _ 서울에서 1년, 청주에선 2년 반 정도이니 한국에 한 3년 정도 되셨네요?

D _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꽤 오래전에 한국에 워크샵 때문에 온 적은 있어요. 그때 한국에 참 매력을 느꼈었죠. 특히, 한국문화에는 신체극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연극, 드라

마, 멜로 드라마, 심지어 음악에도 몸을 쓰는 요소가 많아요. 전통문화인 가면과 탈춤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게 ‘중립 가면’¹⁾ 수업을 할때 제가 그래요. ‘너희들은 한국인이자 이 수업이 어렵지 않을 거야. 큰 행운이지.’ 겨우 한 세기 전만해도 그런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죠. 중립 가면을 배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도 _ 교수님께서 작업하시는 신체극은 지난 비엔날레 개막식 때 본적이 있어요. 꽤 흥미로웠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았던 퍼포먼스가 연극인 줄은 몰랐어요. 신체극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D _ 신체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극이 아니예요. 보통 연극에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신체극은 그렇지 않죠. 신체극은 모든 연극이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요. 신체극은 우리 육체의 사용을 더 강조하면서 극을 써내려가요. 먼저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첫 작업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서, 그 공간의 요소를 수집해 이야기를 만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직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처음에 직지의 역사에 대해 배우들에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음악, 혹은 다른 소리 작업을 곁들이죠. 배우들과의 작업 중에 뭔가 재미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그걸 끄집어

1) 중립가면 = 뉴트럴 마스크(Neutral Mask) 런던 ‘자크르코크 연극학교’ 교육시스템에서 쓰이는 도구로, 소가죽(cowhide)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 우리 몸과 습관을 의식하도록 돕는 도구로 신체가 중립 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와줌.



내 이야기로 발전시켜요. 즉, 하나의 완성된 대본에서 극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느낌, 움직임으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매우 혼란스런 방법이지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도 _ 극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운 작업처럼 들려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직지 프로젝트에 관한 뉴스는 저도 보았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이라면 일반인과의 작업이 더 어려울 텐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나요?

D _ 맞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일반인 참여를 열어놓았어요.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이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모집으로 일반인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도 이 작업에 관심있는 사람, 혹은 독특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그 동안 제가 해 왔던 작업이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열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하루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참여하기도 해요. 이번 직지 프로젝트에는 학생들, 서울에서 온 배우들, 요가 선생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여성분이 동참하고 있어요. 직지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시점이 되면 ‘좋아’라고 말하겠죠. 물론 그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인들(비전공자)들에게 참여를 열어 놓을 거예요.

도 _ 많은 인내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교수님, 청주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청주가 한국과의 첫 인연

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내셨나요?

D _ 서울 한국외대 교수로 있었어요. 1년 동안 그 곳에서 연극 프로그램을 가르쳤죠. 그렇지만 청주가 훨씬 좋아요. 한국외대에서는 영문학과에 있었거든요. 전공과는 매우 동떨어진 학업이죠. 지금 청주대학교 연극학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연극 수업이 있고, 연극 아티스트를 준비하는 패기 넘친 젊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도 _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직지프로젝트를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직지 이야기 중에 특히 박병선 박사에 초점을 맞추시던데, 박병선 박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작업 연구가 진행되었나요?

D _ 전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곳에서 만난 박병선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에서 홀로 공부하면서 직지를 찾아내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직지에 관한 리포트를 쓰고, 프랑스에 빼앗긴 직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증명해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요. 프랑스는 그녀를 매우 싫어하게 되구요. 아마 그녀는 독립적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연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내적, 외적 투쟁이 있었을 거구요. 그녀는 패미니즘적 시각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여성일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녀와의 첫 인연으로 청주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2년 반 전 처음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갔을때예요. 저는 직지에 대해 전혀 몰랐고, 서양인이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최

초의 인쇄 발명자로 배워왔죠. 그런데 제가 방문한 그 날이 바로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에서 사망한 날이었어요. 많은 카메라와 언론이 있었고, 꽃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녀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녀가 직지 탄생의 핵심 인물은 아니죠.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제 수업에 이 스토리텔링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녀를 샘플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청주 학생들이 그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으로 가 연구를 시작했지요.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고장, 나아가 자기 나라에 대해 더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요. 저는 이 이야기가 청주와 서울, 나아가 국제적인 이야기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도 _ 박병선 박사가 교수님과 청주와 직지,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을 잇는 큰 주제가 되는군요.

D _ 네 맞아요.

도 _ 외국인인면서 저희보다 더 박병선 박사에 애착을 가지시는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교수님, ‘아메바(Amoeba)’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해주세요. ‘아미바’라고 읽나요?

D _ 네, 한국에서는 뭐라고 발음하죠?

도 _ 아메바라고 해요.

D _ (웃음)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도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슷하

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미바’라고 불러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무바’라고 하더군요. 아메바(Amoeba)는 서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를 갖춘다는 의미를 가져요.

도 _ 아메바는 전 세계 곳곳의 작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커뮤니티 같던데,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D _ 음...예를 들면 조직을 이끌어 가는 핵심 멤버, 예를 들면 저같은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그 멤버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시점이 되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해요. 지금의 아메바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단 하루라도 혹은 일주일이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아메바 멤버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요.

도 _ 작업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나누는 것인가요?

D _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직지 프로젝트의 경우 직지에 대한 느낌, 첫인상을 물어보죠. 매우 흥미로워요. 한주, 혹은 주말 동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매우 친밀해지죠. 서로 몸을 부딪치고, 들어올리고, 손을 잡고 기대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단순히 앉아서 자기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친밀해져요. 현재는 모나코와 인도네시아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모나코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퍼포먼스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작업을 함께 만들어요. 인도네시아에의 한 멤버는 쓰나미 생존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가르치고 함께 작업하죠.





도 _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놀이터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꽤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의 퍼포먼스를 연상시키기도 했구요.

D _ 그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2004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거대 쓰나미가 덮쳤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지요. 레바논의 친구 한명은 난민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라피극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역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 _ 직지 프로젝트 이후 계획은 어떠세요?

D _ 직지는 우리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직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관련 웹사이트(www.jikjijikjijikji.com)를 영/한 버전으로 구축중이에요. 직지축제에서 15분 남짓한 길이의 작품을 선보이고, 추후 이에 더 살을 붙여 더 긴 버전으로 늘리고 싶어요. 가을 즈음에는 전국을 다니며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과 함께 직지관련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프랑스 레지던시와 연계하여 이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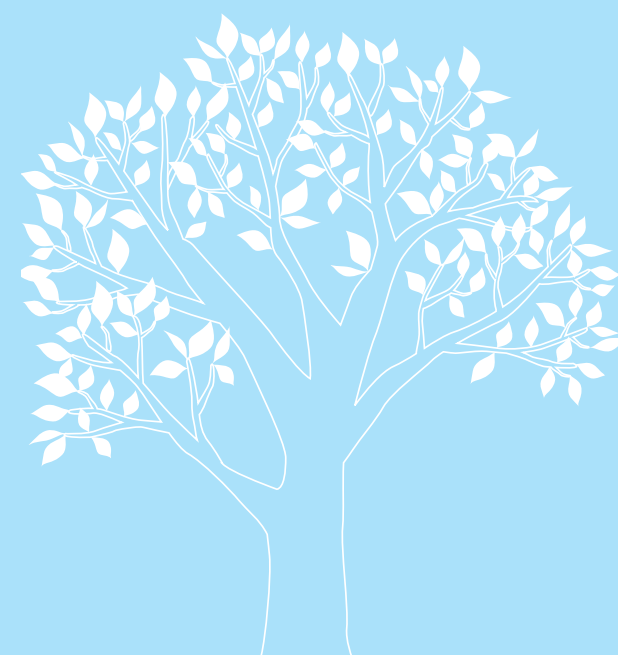
도 _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 무엇을 얻어갔으면 하나요?

D _ 공연을 통해 몇 십분, 몇 시간이고 자신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각자 스토리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으로부터의 협조가 필요하죠. 다행히 한국의 환경은 꽤 좋은 편이에요. 한국에 좋은 극 환경이 많아요. 고전을 신체극으로 표현하는 극단도 있고요. 극을 만들며 마술 같은, 시적인 순간을 만드는 게 제 궁극적 바람입니다.

도 _ 지역 속으로 파고들며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D _ 기본적으로 우리 극단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몇 주전에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배우 등이 대진, 서울 등 각지에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크리에이티브 힐링



치유의 여행, 캄보디아

글 · 사진 _ 강리나



과도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언제인가부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짜증만이 가득할 때, 반복되는 일상에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힐링’이 필요하다. 며칠 휴가를 내어 여행할 여유가 된다면, 자신있게 캄보디아를 추천하고 싶다. 잘 알려진 앙코르 와트 뿐 아니라 숨어있는 아름다운 여행지들이 여럿 있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현지인들의 순박한 미소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구경을 다니다가 피곤해지면 즉석에서 꼭지를 따 주는 코코넛 한 통을 단숨에 빨아 마시고, 향기로운 오일 마사지에 몸을 맡기며 천천히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힐링의 시간... 누가 뭐래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여행지로는 따뜻한 남쪽 나라, 캄보디아 만한 곳이 없다.

세월의 무상함이 깃든 앙코르 와트

앙코르 와트는 앙코르 유적지 안에 위치한 사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 꼽힌다. 약 30여 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건축 당시에는 크메르 제국의 국교였던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국교가 불교로 바뀌자 앙코르 와트 역시 불교 사원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앙코르 와트를 둘러싼 500 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앙코르 유적지를 걷다 보면, 힌두교와 불교의 상징이 혼합된 기묘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건축 예술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을 지배했을 정도로 그 위세와 국력이 대단했던 크메르 제국은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몇백 년에 걸쳐 거대한 나무 숲에 잠겨 잠들어버렸던 고대의 도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설로만 회자되다가 19세기 중엽에서야 어느 프랑스인에 의해 그 모습을 세계에 드러내었다. 오늘날 앙코르 유적지는 명실공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방문객들은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앙코르 와트에서의 아침은 새벽 5시경에 시작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리 예약해놓은 오토바이 택시 ‘뚝뚝’을 타고 상쾌한 숲길을 15여 분 달리면, 눈 앞에 거대한 해자에 둘러싸인 남국의 사원이 나타난다. 수 많은 인파와 소음,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에는 새벽만큼 좋은 시간대가 없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앙코르 와트 뒤로 천천히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본 뒤, 안젤리나 졸리가 ‘툼 레이더’를 촬영했던 따 프롬에서 사원의 석조 건축사이사이로 나무뿌리가 파고들며 남긴 세월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조용한 새벽녘에 마음을 정화하고 싶다면 바이온 사원이 제격이다. 이 곳에는 미소 짓는 얼굴의 거대 석상들이 모여있는데, 부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도 있고, 앙코르 유적지를 세운 크메르 제국의 위대한 왕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을 본뜬다는 설도 있다. 적당한 곳에 걸터앉아 은은하고 평화롭게 미소 띤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신의 가장 못난 부분까지도 이해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앙코르 유적지에는 볼거리가 무척 많아 꼼꼼히 관람하려면 일주일도 모자랄 지경인데, 체력의 완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기 일쑤이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데다가 걷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구경하다 보면 점심때 쯤 벌써 기진맥진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앙코르를 거닐어 보자. 한때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던 이 곳은 과거의 부귀영화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앙코르는 삶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세월은 무상하고 이 모든 게 다 지나가리라는 가르침과 함께 마음의 위안을 준다.



오감을 치유하는 산과 바다의 힘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을 향해 차로 3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후주 재배로 유명한 캄팟(Kampot)이 나온다. 이 근처에는 짙은 산 안개로 신비로운 연기를 뿜는 ‘보꼬국립공원’과, 자연의 풍광 안에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바닷가 마을 ‘깬’이 있다. 이왕 캄보디아에 여행 왔다면, 놓치지 말고 꼭 둘러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들이다.

20세기 초반 식민지 시절, 캄보디아에 머물던 상류층 프랑스인들은 프놈펜의 덥고 습한 날씨를 피해 이곳 보꼬산 위에 별장을 지었다. 독립 이후 5~60년대에는 카지노로 쓰였지만,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름답고 고풍스러웠던 석조 건축물은 몰라보게 낡아졌다. 버려진 건물이 뿜뿜한 안개에 둘러싸이면 주변 분위기가 음산해지는 탓에 이 곳은 국내 영화 ‘알포인트’를 비롯, 여러 공포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근처에 위치한 옛 가톨릭 성당 역시,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바라봐도 그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눈 앞을 하얗게 메우는 안개 속에서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을 딛고 선 땅이 아득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방이 안

보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감각뿐인 그 길 위에서,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온갖 상념들은 다 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발을 떼는 데에만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온몸에 짙지만 충만한 평화가 찾아온다.

보꼬산에서 내려오면 푸르게 빛나는 바닷가 ‘깬’이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해산물, 저렴한 물가로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이다. 깬 국립공원에 위치한 산에 올라가 시원한 공기를 쉼터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고, 규칙적인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닷가에 앉아있는 것도 괜찮지만 뭐니뭐니해도 깬의 매력은 싱싱하고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해산물이다. 바닷가에는 ‘게 시장’이 따로 있어 뜨거운 태양 아래 금방 잡아올린 게와 물고기, 새우, 오징어가 좌판 위에서 기온차에 퍼덕인다. 껍질 안에 살이 가득 찬 게는 매콤달콤한 양념에 요리되어 나온 것이 가장 맛있는데, 초록색 생후추 열매를 인심종게 잔뜩 곁들여 주는 덕분에 오독오독 씹는 맛까지 재미있고 독특하다. 게를 서툴게 손질하다 못해 살점을 남기는 외국인에게는 친절하게도 게살을 쓱쓱 발라주는 현지인 직원까지 있으니,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유쾌한 곳인가!



캄보디아의 주요 여행지에서는 관광뿐 아니라 여러가지 색다른 체험을 해 볼 기회도 많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캄보디아 요리 강습은 특히 인기가 높는데, 반나절이나 한나절 코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아침 일찍 현지인 요리 선생과 같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두세 가지 캄보디아 전통 요리법을 배운 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몇몇 예술 기관에는 전통 악기와 춤, 공예 수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시내의 사진관에서는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을 입고 풀 메이크업에 헤어 세팅까지 한 후 이색적인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0불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마사지이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잔잔한 향을 음미하며 마사지사사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캄보디아의 마사지는 아프거나 세지 않고, 그저 조곤조곤 부드러운 뿐이다. 마치 국민성과도 같다고 생각된다. 천성이 순하고 친절한 사람들.

캄보디아는 따뜻하다. 역사 속에 고이 잠든 앙코르 와트와 사방을 하얗게 감싸는 보꼬산의 안개, 순박한 사람들의 웃음 사이에서 평화롭게 거닐다 보면, 어느새 모 났던 마음이 둥글어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작가 존 스타인벡이 말하지 않았던가.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다. 여행이 사람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강리나

영국 브라이튼대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사를 전공한 후 이 및 비 전략 개발 전문가로 4년간 활동하였다. 2011년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석사 졸업 후 현재 브라이튼대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이수중이다. 세계적 브랜드 기업 울프 올린스, 디자인포커스,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브랜드 전략 및 소셜미디어 홍보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한 프랑스 루브르-랑스

글 · 사진 _ 지영호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는 1959년 문화 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 문화 예술의 창작·지원·보급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문화정책에 개입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능한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인류의 주요 작품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며, 예술 작품의 창작을 장려”하는 문화부의 임무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문화 분야 발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문화 민주화’, ‘문화 다양성’, ‘지방 분산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며 발전했다. 특히 문화부는 파리에 집중된 문화예술기관 지방 이전사업을 통해 2010년 퐁피두 센터-메츠(Centre Pompidou-Metz) 개관, 2012년 루브르 박물관 랑스(Musée du Louvre-Lens) 개관, 2013년 마르세유 유럽과 지중해 문명 박물관(Musée des civilisations de l'Europe et de la Méditerranée) 개관 등 적극적인 지방 분산화 정책을 펼쳐왔다.

찬란했던 과거의 도시 ‘랑스’

파리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노르-파-드-칼레(Nord-Pas-de-Calais)도의 랑스(Lens)는 양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간직한 작은 도시이다. 랑스는 한때 석탄 채굴로 번영을 누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광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탄광 폐쇄로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16%에 이르는 등 프랑스에서 제일 가난한 도시로 선정된 랑스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문화 민주화와 지방 분산화 정책의 하나로 프랑스 제1의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의 지방 분관 설립 계획을 발표한다. 탈산업화와 각종 사회 문제로 신음하고 있었던 작은 마을에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막대한 전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국경 도시라는 지리적인 단점은 21세기에 들어 파리, 런던, 브뤼셀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유럽의 교차로로 부상하며 랑스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20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도시 재생을 원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맞물려, 랑스는 2004년 11월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세워질 최종 도시로 선정되었다.



2012년 루브르-랑스 개관

루브르-랑스는 지난 2009년부터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의 공동 건축사무소인 SANNA가 설계를 맡아 석탄 채굴 집하장이 있었던 부지에 착공을 시작했다. 프랑스 대다수 박물관이 고풍스러운 외관을 뽐내는 것과 달리, 루브르-랑스의 외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리 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이고 단순한 외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2년 12월 12일 일반 관객에게 문을 연 루브르-랑스는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유물없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으로부터 소장품을 대여해 전시하고 있다. 상설 전시장인 시간의 갤러리(La galerie du Temps)는 고대 유물에서부터 19세기까지 250여 점의 소장품을 연대순으로 선보여 관람객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인류의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게 꾸며진 전시실 내부는 기존 박물관의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와 다르게 유리벽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통해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박물관은 ‘시간의 갤러리 명작선’, ‘박물관 수장고 탐방’, ‘박물관 건축 탐방’ 등 전문 인력의 해설을 동반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물관 관람객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특히 ‘박물관 수장고 탐방’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박물관 내 무료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된 박물관 수장고를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보니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하 1층에서 수장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루브르-랑스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 총 3개 언어로 제공되는 기기는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비롯하여 시간의 갤러리를 3D로 관람할 수 있는 기능, 큐레이터와 박물관 전문 인력들의 중요 유물 음성 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코스를 선정하여 6개의 주제별 방문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7-12세의 어린이들이 박물관의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로 이루어낸 도시 재생

루브르-랑스의 개관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한 프랑스 문화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의 박물관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이는 문화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들을 박물관으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랑스의 경우처럼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예술 기관이 없는 도시의 주민들은 문화 향유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채 문화적 불평등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루브르-랑스의 개관 후 성적은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다. 연간 방문객 규모가 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 루브르-랑스는 지난 1년 동안 9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6명 중 1명꼴로 랑스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루브르-랑스가 지역 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랑스 지역에만 200여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식당의 매출도 전년 대비 2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물관 개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쟁의 상처와 탈산업화의 슬픈 역사를 가진 작은 도시의 성공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랑스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잦은 센 강의 범람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수장고가 랑스로 이전할 예정이며, 랑스를 포함한 노르-파-드-칼레 탄광 지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의 문화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이루어낸 도시 재생을 통해 랑스가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지영호

프랑스 아비뇽 보클루즈 대학교에서 문화 기획 및 문화 개발 전략 석사 학위 취득 후, 현재 파리3 소르본 누벨 대학교에서 문화 기획, 미학과 예술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한국문화산업교류단, 청주시문화재단의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면(Cotton)에서 문화(Culture)로 독일 라이프치히 슈퍼너라이

글 _ 박희봉 / 사진 _ 편집부



© Image courtesy of Flickr user Tina Monumentalia

음악과 출판의 도시, 라이프치히 <Leipzig>

도심 중앙에 위치한 ‘오퍼 라이프치히 광장’을 출발해 로드샵이 늘어난 고풍스러운 거리를 유유히 걷다보면 어느덧 토마스 교회(Thomaskirche)를 만나게 된다. 바흐가 합창장으로 있으며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다는 교회다. 매년 하반기에는 바흐를 기념하는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도 열린다. 교회 앞에 우뚝 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동상은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히를 상징한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낭만적인 클래식 음악과 전설적 작곡가 외에도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신문을 인쇄하고, 한 때는 독일 인쇄물의 절반을 간행했던 출판의 도시로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위상은 독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라이프치히 도서전으로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도시에는 번영과 쇠락이 공존한다

한 때 구 동독 최고의 공업도시이자 독일 통일의 불꽃을 치켰던 이 유서깊은 도시에는 여전히 통일 후 유증을 앓고 있다. 변화한 도심을 벗어나 차를 타고 달리면 곳곳에 버려진 건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리창은 깨지고 건물 외벽은 그래피티 낙서로 가득한 건물들... 한 때는 공장으로 혹은 사무실로 옛 라이프치히의 번영을 상징했던 건물들이지만 이젠 이 도시에 또 도시 재생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다. 비단 인간 뿐만 아니라 도시도 도전과 응전을 반복한다. 라이프치히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의 쇠락이라는 도전에 대한 아주 좋은 응전의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바로 슈퍼너라이(Spinnerei)다.

거대한 방직공장이 문화아지트로

‘슈퍼너라이’는 라이프치히 서쪽 외곽에 자리 잡은 예술문화복합단지다. 붉은 벽돌 건물이 흩어져 있는, 조금은 삭막해 보이는 이곳은 무료 9만 제곱미터의 크기를 자랑한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놓은 갤러리와 작업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은 학교 교실 몇 개는 합쳐 놓은 듯한 큰 크기여서 창작혼과 창의성을 발휘하기엔 제격이다.

‘예술문화복합단지’라는 거창한 명칭이 붙었지만 125년 전에는 9만 제곱미터의 터에 자리 잡은 거대한 방직공장이었다. 직원 4천여 명이 일하고 공장안에는 유치원과 기숙사까지 갖춰져 있었다. 한국의 청주에 빗대자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양 최대규모의 방직공장이었던 대농 공장터와 연초제조창과 아주 비슷한 곳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방직공장은 역사와 세계 경제의 변화란 큰 흐름 속에 몰락했고 라이프치히는 이 공간의 새로운 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 Spinnerei



힐링, 또 함께

몰락했던 방직공장이 다시 일어선 계기는 독일의 기업가들이 지난 2001년 슈피너라이를 구 동독 정부 소유의 회사운영체로부터 사들인 뒤부터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가진 이 방직공장터가 라이프치히의 미래를 보여줄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했고 곧 이를 실천했다. 처음엔 많은 은행에서 슈피너라이를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을 거절했다. ‘예술’, ‘구 동독’, ‘옛 공장터’...슈피너라이를 설명하는 이런 단어들은 은행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도심 재생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환점은 항상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협력에서 시작된다. 슈피너라이도 마찬가지였다. 기업가들은 라이프치히市 당국을 설득했고 곧 민간에서도 반응이 왔다. 한 재단의 지원으로 이들은 슈피너라이 개발을 총괄할 비영리기구 ‘할레(Halle) 14’를 만들었다. 변화는 시작됐다.

문화와 창조의 전진기지, 슈피너라이

슈피너라이는 이제 전 세계 문화예술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젊은 예술가와 중견 예술가 구분없이 지금 슈피너라이를 찾고 있다.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슈피너라이의 장점이다. 예술가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간을 꾸민 결과다. 여기에 음악의 도시라는 라이프치히의 이미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쇠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쇄, 출판 산업도 슈피너라이의 예술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공간들이 예술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역사와 도시의 현재,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조열기가 가득한 슈피너라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상당산성 숲길,
문화 예술이 꽃피는 초정약수 물길,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증평 들길 따라
‘세종대왕 100리’의
이야기에 젖는다

[illegible]



숲길, 오래된 미래를 품다 - 상당산성권

천년 고성 '상당산성'을 따라 걸으며 숲길의 과거와 미래를 만나다

삼국시대 토성으로 세워져, 조선 숙종 대에 개축된 4.2킬로미터에 이르는 상당산성은 청주·청원·증평을 아우르는 '세종대왕 100리'의 출발점이다. 오랫동안 굴곡진 시대의 풍파를 겪으며 나라를 지켜낸 성곽에는 역사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종대왕 100리'에서 새로운 문화를 꿈꾸다

'세종대왕 100리' 상당산성권역의 이야기를 담은 《숲길, 오래된 미래를 품다》에서는 금속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청주의 새로운 문화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담배 생산 중단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연초제조창 자리에는 '청주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서 2년 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그곳은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의 교육·문화 융합 콘텐츠를 생각하는 '에듀테인먼트'로 특화된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다시 태어나 하나의 문화가 끝난 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또 다른 문화와 융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세종대왕 100리'의 출발점 청주문화산업단지에서 우암산걷기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 고(故) 김수근 씨가 설계한 국립청주박물관을 만난다. 전시실을 가득 채운 고려시대 사찰 사뇌사(思惱寺) 출토 유물은 고려시대 직지를 찍을 당시(1377년) 청동 유물로 청주가 왜 금속의 고장인지를 잘 보여준다. 길은 또다시 동심을 담은 청주랜드와 300여 점의 다양한 용기를 전시하고 있는 용기박물관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4.2킬로미터에 이르는 상당산성과 마주한다.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숲길, 상당산성 길

백두대간인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한남금북정맥의 허리에 위치한 상당산성은 언제, 누가 처음 쌓았는지는 알 수 없다.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면 대략 통일신라시대에는 어떤 형태로든 산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토성으로 세워져, 조선 숙종 대에 개축된 상당산성에는 공남문(남문)을 비롯해 미호문(서문), 진동문(동문) 등 3개의 문과 2개의 암문(동암문·남암문) 그리고 치성 3개소, 수구 3개소가 위치한다. 공남문은 상당산성을 한 바퀴 돌 때, 들머리로 삼는 곳으로 앞쪽에 조성된 드넓은 잔디밭은 소풍 나온 시민들의 쉼터이자 역사 공원이다. 치성(雉城)은 성벽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은 돌출 성벽으로, 평소에는 초소 역할을 하다가 전시에는 적을 옆에서 공격하도록 고안한 방어 시설이다. 암문(暗門)은 항쟁 물자를 운반하고,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구원 요청을 하거나 역습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굴곡진 시대의 풍파를 겪으며 나라를 지킨 상당산성은 조선 시대의 축성 기술과 산성 문화를 집약해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육장이다. 현재 상당산성은 중부내륙 산성군의 핵심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오르는 등 중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숲길, 오래된 미래를 품다》는 상당산성에 이르는 길을 모두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그 코스를 모두 걸으면 상당산성의 개요를 알 수 있도록 곳곳에 숨겨진 역사와 유물, 전설 등 인문학적 배경(더 깊이 알기)을 곁들여 구성했다. 이 책은 굳게 닫힌 성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산성 주변의 싱그러운 자연과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살아 있는 역사의 산증인, 상당산성

천 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상당산성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들이 존재한다.

오래도록 가뭄이 지속되었을 때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는데, 1671년 청주목사 남구만(1629~1711)이 쓴 〈상당산성기우제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다. 또한 변방의 긴급한 상황을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를 피워 알렸던 통신 제도인 봉수 제도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세종실록지리지》(청주목 봉수 편)에 나오는 상당산성 것대산 봉수대는 1998년 11월 20일 충청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 밖에도 난공불락의 요새 상당산성 탈환에 얽힌 야사를 다룬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상당산성 길 정자에 1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음을 갖다 놓았던 열음골 아저씨 이야기 등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전해지는 비화(秘話)들은 상당산성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준다.

본문에 수록한 〈소설로 보는 상당산성 이야기〉는 1728년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을 함락했던 이인좌의 난을 모티브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두 편의 소설로 구성했다. 첫 번째 소설 '동암문 이야기'에는 충의 길을 버리고 반역의 길에 선 무관 양덕부의 열흘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축성 책임자로 일했던 그의 이름은 현재, 공남문 오른쪽 치성 성벽에 '장 양덕부(將 梁德溥)'라고 쓰여 있고, 동암문 안쪽에는 '패장한량 양덕부(牌將 閑良 梁德溥)'라고 새겨져 있다. 이는 성벽을 똑바로 쌓지 않으면 축성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두 번째 소설 '상봉재 이야기'는 비장 홍림의 아내인 해월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의 정치 사건과 가부장 세계가 한 개인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는가를 그렸다.

이 책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테마 여행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세종대왕 100리' 답사에 더할 나위 없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 책 속으로 |

금속과 문화가 융합한 최초의 사례는 고려시대에 꽃피운 불교 유물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려시대 사찰 사뇌사(思惱寺) 출토 유물은 청주가 왜 금속의 고장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993년 10월 용화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무심천 변, 제방 확장 공사를 하던 중 고려시대의 금속공예품 수백 점이 발견됩니다. 의식구, 공양구, 장엄구, 생활용구 등 378점의 유물은 모두, 직지를 찍을 당시(1377년)의 고려시대 청동 유물이었습니다. _p26 <제1부 폐허에서 감성으로, 역사에서 일상으로>

상당산성을 향해 난 길은 여럿입니다. 그중 상봉재를 거쳐 상당산성에 오르는 코스가 가장 오래된 길입니다. 명암타워에서 상당산성 도로를 따라 걷다가 로드파크부터 시작되는 상봉재 옛길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다만 자동차 도로를 따라 걷기가 불편하다면, 명암저수지에서 출발해 풍주사를 거쳐 상봉재에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상당산성 도로를 새로 내면서 상봉재 옛길이 많이 사라졌지만, 애기바위부터는 옛길이 남아 있고 암각선정비와 웅달샘, 서낭당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_p41 <제2부 이야기 길, 상당산성 길>

공남문(남문) 앞에 조성된 드넓은 잔디밭은 소풍 나온 시민들의 쉼터이자 역사공원입니다. 소나무 숲이 만들어주는 그늘은 시원하고 그곳에 앉아 바라보는 공남문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비석들은 상당산성의 옛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남문 광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시비입니다. 세상천지를 떠돌며 살았던 매월당의 발길은 예의 상당산성에도 닿았고 여기서 느낀 감회를 시로 남겼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누구일까요? ‘비는 아니 오는데 천둥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른 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無雨雷聲何處動 黃雲片片四方分)’ _p79 <제3부 상당산성의 문화 발원지, 공남문 광장>



둘레 4.2킬로미터의 상당산성을 한 바퀴 돌 때, 그 들머리로 삼는 곳이 바로, 상당산성의 정문인 공남문입니다. 공남문은 <대조영>, <태왕사신기>, <카인과 아벨> 등 많은 드라마가 촬영된 명소입니다. 공남문은 상당산성의 세 개문 중에서 유일한,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피신하는 행궁에는 모든 문을 홍예문으로 세웠습니다. 행궁이 아니라 지방 전선 사령부였던 상당산성에는 공남문 한 곳에만 홍예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_p97 <제4부 다 함께 돌자 산성 한 바퀴>

충청도 54개 고을의 육군을 총괄하는 충청병마절도사영이 옮겨 오자 청주읍성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우선 청주목 관아 옆으로 그보다 큰 병영이 들어서고, 정삼품 청주목사보다 한 등급 높은 종이품의 충청병사가 부임합니다. 병영을 옮겨 오고 3년 뒤인 1654년에는 옥천에 있던 중영(中營)마저 청주로 옮깁니다. 이로써 청주는 행정과 사법은 물론, 군사의 기능을 아우르는 내륙의 중추도시가 됩니다. _p122 <제5부 청주읍성 종소리, 상당산성에서도 들리네>

상당산성은 1716년 석성으로 개축된 이래 꼭 한 번 함락됩니다.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란군에 의해서였습니다. 바로 18세기 최대의 반란 사건인 ‘이인좌의 난’ 때입니다. 1728년 3월 15일, 이인좌의 군사들은 청주성과 상당산성을 함락합니다. 뒤이어 영남의 정희량과 호남의 박필현 등도 잇따라 거병합니다. 전국에서 거병한 군사를 모두 합치면 이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반란이었습니다. _p151 <제6부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못하네>

| 지은이 소개 |



글 | 연규상

충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1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개가 돌아오는 저녁>이 당선되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주간지 <충청리뷰>를 창간해 7년 동안 일하기도 했다. 현재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디자인, 실내건축 등을 맡는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 강호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뉴욕,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페어전을 열었으며 3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충청북도미술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충북일보>에 ‘강호생의 그림과 이야기’를 연재했다.



사진 | 송봉화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사진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한 작업의 성과물을 엮어 <숫대> <장승과 벼수> <충청 마을 지킴이> <청천 재발견 그 삶의 이야기> <도심 속 작은 공동체 수암골> 등의 책을 펴냈다. 이 밖에도 개인전 <간척지>, 일본 초대전 <군치>를 열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박물관 기록사업에도 참여했다.



물길, 오래된 세종대왕 꿈을 담다 - 조정약수권

세계 3대 광천수 ‘조정약수’ 물길에 피어난 문화 예술의 혼을 만나다

1444년 세종대왕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23일간 초정에 머물며 ‘조정약수’로 눈병을 치료하고 한글 창제에 매진하는 등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그리고 500여 년 후, 한국 미술의 거장, 김기창 화백도 초정에 머물며 새로운 예술의 꽃을 피웠다.

조정약수, 세종대왕과 만나다

‘세종대왕 100리’ 조정약수권역의 이야기를 담은 《물길, 세종대왕 꿈을 담다》는 현존하는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초정에 남긴 흔적을 상세히 재현한다. 한글 창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에서 벗어나 이루어진 초정으로의 이궁은 세종 임금이 조용히 한글 연구에 매진하며 내실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3대 광천수로도 꼽히는 ‘조정약수’는 눈병을 치료하고 쇠약해진 몸을 다스리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세종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초수’에 눈을 담그고 탕실에 들어가 정성껏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현재 세종대왕의 흔적은 조정약수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톱 쏘는 맛이 일품인 ‘초수’를 음용할 수 있는 약수 원당 · 문자테마파크 · 생태공원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매년 ‘조정약수축제’를 통해 세종대왕 어가 행렬을 재현한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초정 행차를 기념하며 세종대왕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뤄낸 당대 최고 재상과 신료들의 시문을 전한다.

초정에 핀 예술의 혼, 삶의 소리를 화폭으로 담아낸 운보 김기창

한글의 창제에 매진했던 세종대왕이 남긴 이야기는 초정의 미래와 함께 또 다른 물길로 이어진다.

한국 화단에 새로운 예술의 꽃을 피운 운보 김기창 화백은 평생 예술 도반의 길을 걸어온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머니의 고향인 내수읍 형동리에 ‘운보의 집’을 지어 그곳에서 마지막 예술의 혼을 불사른다. 세종대왕과 운보의 인연은 운보가 만 원권 지폐 도안의 원본이기도 한 세종대왕의 어진(御眞)을 그리며 시작되었는데 초정에서 다시 조우한 것이다.

김기창은 장티푸스로 여덟 살에 청각을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작품 활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운보에게 그림은 삶이었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응시했던 내면의 소리였다. 17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70여 년간 작업에 몰두하며 평생 2만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내놓은 그는 어느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로 경계를 넘나들며 그림을 그린 한국 화단에서 유일무이한 화가다. 장애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만난 아내 박래현은 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술 활동의 동반자였으며 운보가 확고한 작품세계를 펼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런 김기창

화백에게 아내를 떠나보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79년 그는 형동리에 ‘운보의 집’을 지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일을 시작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여생을 바쳤다. ‘운보의 집’은 대지면적 약 3만여 평에 김기창 화백이 생전에 기거하던 전통한옥을 중심으로 미술관과 분재공원, 수석공원, 조각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물길, 세종대왕 꿈을 담다》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술을 사랑했던, 초정에 문화 예술 발전의 싹을 틔운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삶을 다시금 조명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을 수록하였다.

역사로 남겨진 영웅들, 초정에서 싸우다

초정 마을 뒤편에는 장수처럼 버티고 있는, 봉우리가 높아 마을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구라산이 있다. 조선의 세종과 세조가 이 산 아래에 머무르며 쉬어 갔지만 천 년 전, 아득한 시간 속에서 이미 난세의 영웅(신라의 김유신, 후삼국시대의 궁예, 왕건, 견훤)들이 왕이 되고자 이 길을 올랐다. 삼국의 변방인 충북 지역에는 이때 크고 작은 산성들이 많이 생겨났고,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성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이 되었다.

《물길, 세종대왕 꿈을 담다》는 역사에 근거하여 구라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왕들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성을 지으며 생겨난 축성설화들을 설득력 있게 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던 구한말, 독립운동을 펼쳤던 번개대장 한봉수 의병장의 흔적과 초정의 자연을 닮아 거짓 없이 올곧게 살아간 사람들의 충효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 책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테마 여행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세종대왕 100리’ 답사에 더할 나위 없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탕! 탕! 다시 두 발의 총성이 들녘으로 퍼져 나갔다. 놀란 말들의 울음소리가 하늘로 솟구쳤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총성이 이어지면서 평화롭던 들녘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을 탄 일본 헌병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바닥은 붉은 피로 낭자해졌다. 일순 벌어진 기습이었다.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일본 헌병 두 명은 황급히 말고삐를 움켜잡고 뒷걸음쳐 도망쳤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짧은 정적이 흘렀다 _p175 <제4부 한봉수 충효길>

초정약수공원을 빠져나오면 길은 다시 갈라진다. 증평 울리로 넘어가는 고개와 미원으로 넘어가는 이터재 그리고 청주로 가는 길이다. 그 삼각지점에 초수로 목욕하는 약수탕이 위치해 있다. 약수 중에서도 초수의 독특한 물로 유명한 초정약수원탕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다. 톡 쏘는 초수에 목욕한 후 시원하게 마시는 물맛의 비결에 다시 찾게 되는 곳이다. _p222 <제5부 마음으로 만나는 세종대왕 100리길>



| 지은이 소개 |



글 | 연지민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으며 2000년 문단에 등단해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충청의 천연기념물 그 천혜의 비상》(공작공작 휴) 《충북의 박물관 미술관》(천년의 미소에서 꽃이 피다) 등이 있다. 현재 《충청타임즈》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그림 | 손순옥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채송화, 대나무, 솔방울 등을 평면·입체로 표현해 한국의 서정을 담은 개인전을 17회에 걸쳐 열었고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올해의 청년예술가상, 올해의 좋은 작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충북민미협 회장을 맡고 있다.



사진 | 문상욱

충부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영상을 전공했다. 충청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로 개인전 6회와 국제초대전 12회를 가졌다. 충북예총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사리에보 겨울축제 한국현대사진전 큐레이터, 한국흑백사진페스티벌 집행위원장, 한국사진문화원 대표를 맡고 있다.



| 책 속으로 |

세종대왕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룬 당대 최고 재상과 신료들의 시문에서 그날의 초정을 들춰 볼 수 있으니 그도 진한 울림이 된다. ‘봄날에 깃발을 펴리며 남쪽 지방으로 행차하시니/ 눈에 비친 향기들이 높이 아래로 매달렸도다/ 조물주는 또한 우리 성군(聖君)을 자랑하니/ 오늘날에 와 서원 땅에 좋은 샘이 솟아났도다/ 유리 같은 샘물 그림자가 움직이려 하는 때/ 해와 달은 분명하게 앞뒤로 떠 있도다 물 한 잔이 능히 오래 살 수 있게 하니 다시 또 어느 곳에서 온천을 찾을 것인가 비 오던 검은 구름 하늘에서 걷어지니/ 행궁(行宮)에 바람 높고 흰 태양이 비치도다/ 태평성대의 조짐을 누가 능히 그리겠는가/ 또한 기산(岐山)에도 은턱의 샘이 있도다’ _p61 <제1부 세종대왕 산책길>

오랜 침묵을 깨우듯 운보의 집을 찾았다. 행랑채와 안채를 구분하는 담장 사이로 잘 다듬어진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운보의 체취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서니 단아하면서도 과하지 않고, 고졸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한옥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갈한 마당에 서니 까마득한 어느 날 설핏 보았던 운보 선생이 떠오른다. 하얀 한복 차림으로 안채 마루에 걸터앉아 망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던 할아버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누구와 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먼발치에서 보았던 운보 선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다. _p112 <제2부 운보 예술길>

세력을 모으는 중심지는 청주였다. 궁예에게 청주는 근거지와 같았다. 경주에서 도망 나와 세달사에서 승려의 삶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세상과 인연을 맺은 곳이 청주였다. 양길의 휘하에서 친구가 된 신현 역시 청주 출신 호족이었다. 훗날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며 청주 사람 천호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을 정도로 청주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_p138 <제3부 김유신 리더길>



들길, 이야기 따라 걷다 - 증평권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들길에 펼쳐진 소박한 농경문화를 만나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숲, 바다보다 짙고 푸른 호수, 때 묻지 않는 농경문화를 품은 들길. 《들길, 이야기 따라 걷다》는 좌구산 자락에서 증평 남하리에 이르기까지 삼기천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을 이야기를 '좌구 할매'의 입담으로 풀어낸다.

들길 따라 이야기 따라 구수한 입담으로 전하는 증평 마을 이야기

‘세종대왕 100리’ 증평권역은 ‘좌구산 제1문’이 위치한 울리 삼거리부터 좌구산 휴양림까지 이어진다.

상당산성권의 숲길과 초정약수권의 물길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면, 증평권역은 좌구산 아래 펼쳐진 평화로운 들판이 함께한다. 풍수에서 제일로 가는 배산임수를 자랑해온 이곳은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기중기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들길, 이야기 따라 걷다》에서는 삼기천을 따라 펼쳐지는 증평 지역 마을의 이야기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좌구 할매’의 입담으로 풀어낸다. 아울러 좌구산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는 독서광 김득신의 흔적이 담긴 울리, 넓은 들을 품고 있는 죽리, 마애불과 미륵불이 지켜주는 남하리, 굽이굽이 전설이 살아 있는 남차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선 최고의 책벌레 ‘김득신’을 낳은 울리를 거닐다

울리는 증평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최고의 책벌레 김득신(1604~1684)이 탄생한 곳이다. 김득신은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이며, 간서치(看書癡)였다. 그는 능력을 타고났다고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한 대기만성 형이었다. 남들보다 글자를 늦게 깨우치기도 했지만, 아버지 심곡 선생은 나무라지 않고 꾸준히 글공부를 시켰다. 김득신은 부족하지만 응원해주는 아버지 덕분에 힘을 얻어 책을 읽으며 꾸준히 학문에 정진했다. 다른 사람이 책을 열 번 읽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백 번, 천 번, 만 번을 읽었다. 그의 독서 기록은 말년을 보내며 괴산 능촌리에 그가 직접 세운 취묵당(충북 문화재자료 제61호) 앞에 걸려 있는 ‘독수기(讀數記)’에 잘 나타나 있다.

‘장자, 사기, 대학, 중용은 많이 읽지 않은 것이 아니나, 읽은 횟수가 만 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지 않았다’라는 것만 살펴봐도 학문을 향한 김득신의 집념을 엿볼 수 있다.

《들길, 이야기 따라 걷다》는 독서, 시 짓기와 관련된 김득신의 여러 가지 일화와 사람 됨됨이를 살피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마흔 해가 넘게 꾸준히 책을 읽고 시를 공부한 끝에 말년에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름을 날렸다. 남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황소처럼 느린 걸음으로 묵묵히 걸어간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렸을 따름이다.’

삶의 흔적이 담긴 들길에서 만나는 오래된 마을 이야기

증평에서 가장 높은 산인 ‘좌구산’은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산은 아니지만 어머니 배 속같이 편안하고 정겨운 산이다. 산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좌구산(座龜山)’은 나중에 ‘개(狗)’한테 이름을 빼앗겨 ‘좌구산(座狗山)’이 되었다는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와 ‘심기원’의 전설이 전해진다.

울리마을을 지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좌구산 휴양림이 나온다. 근처 좌구산 천문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굴절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하늘의 신비를 두 눈으로 또렷이 관찰할 수도 있다. 또한 우스꽝스러운 돌미륵불상이 위치한 남하리 절터 앞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는 전통 민속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증평 마을은 노동요인 ‘두레농요’가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로 한국 전통의 농경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다. 책에서는 증평 지역 민요 십여 편을 수록하여 구성된 가사 속에 담긴 농민들의 애환을 보여준다.

《들길, 이야기 따라 걷다》는 들길 따라 이야기 따라 마을에 펼쳐진 삶의 흔적을 따라간다. 김득신이 해 질 녘 저녁노을에 취해 지은 시 〈죽리고연(竹里孤煙)〉의 배경이 되었던 죽리마을에 자리한 선돌 한 쌍과 커다란 느티나무는 역사를 머금으며 든든히 마을을 지켜온 산증인이다. 이 밖에도 역사와 전통이 깃든 마을에 수호신으로 뿌리내린 불상, 샘, 나무는 소박한 농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테마 여행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세종대왕 100리’ 답사에 더할 나위 없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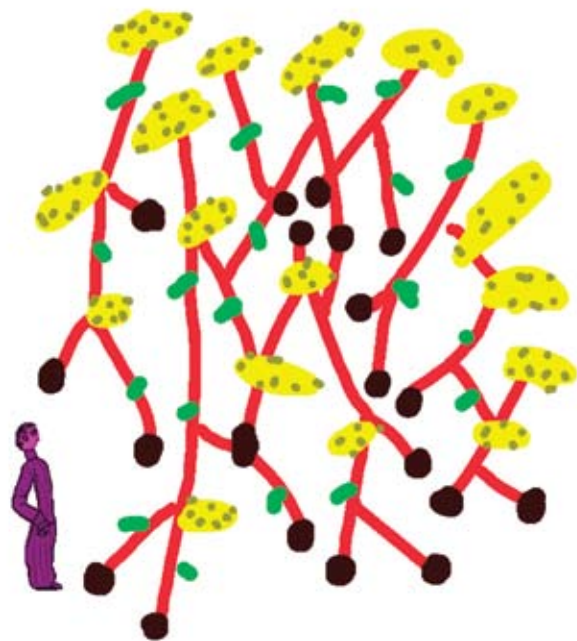


| 책 속으로 |

좌구산은 사람 기죽이게 높지도 않고, 삐죽삐죽 저를 드러내려구 애쓰지도 않고, 그저 소잔등마냥 밟이랑 마냥 구불구불 편안하게 내리뻗은 산이여. 그 좌구산 이 골짜 저 골짜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와 내를 이루 어 흘러내리는데 그게 바로 삼기천이여. 삼기천은 물길 따라 흘러내려 증평에서 보강천이랑 만나구 다시 미호천이랑 만나서 금강 줄기로 흘러내려가. _p19 <제1부 길 따라 이야기 따라> _p19 <제1부 길 따라 이야기 따라>

울리 삼거리를 예전엔 수살거리라 불렀다구 했지? 이곳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 전날이면 수살제를 지내 구 있어. ‘수살’은 동네 어귀에 서있는 돌이나 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며. 수살막이, 살막이, 수살목이라구도 불려. 동네를 수호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 전염병이 유행할 땐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게 수살에 새끼줄을 쳐서 모시구, 또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환자의 옷을 걸어놓기도 했어. 장내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수살제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마을에 병도 없구, 화재나 홍수 피해도 입지 않구, 농사 풍년 들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평안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구 빌구 있어. _p35 <제2부 굽이굽이 전설이 살아 있는 남차리>

김득신이 남긴 수백 편의 시 중에 밤티마을에 대해 쓴 시도 몇 수 전해지구 있어. 그중에 <밤티굴(栗峽)>이란 시 하나만 소개해줄게. 김득신 묘소 옆에 ‘밤티굴’ 시비가 세워져 있어. ‘산기슭 시냇가의 너럭바위 대(山畔溪頭石作臺)/올라 굽어보니 석양도 황홀해(登臨斜日兩眸開)/시흥에 겨워 자주 붓대를 잡고(詩因有興頻抽筆)/시름을 삭히고자 술잔을 거듭해(酒爲銷愁每把盃)/나그네 혼 꿈길로 서울을 찾고(客子夢魂京裡去)/벗의 서찰은 산촌까지 전해오네(故人書札峽中來)/봄이 오는 이즘 무단히 놀람은(無端警覺新春近)/잔설 속에 망을 트는 매화 때문(積雪初融欲綻梅)’. _p71 <제3부 최고의 책벌레 김득신을 낳은 울리>



그러니께 김치랑 심기원은 바로 좌구산 쪽에서 온 개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겨. 목숨을 구한 건 이 두 사람뿐 만이 아녀. 역모란 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서, 감자 줄기에 감자알 딸려 나오듯이 줄줄이 목숨 줄이 붙어 있었지. 역모가 들통 나는 날엔 그 집안 삼족을 멸해 완전히 씨를 말렸으니, 그 개가 살린 목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겨. 그래서 김치는 그 뒤로 좌구산을 ‘거북 구(龜)’ 자 대신 ‘개 구(狗)’ 자를 써 ‘좌구산(坐狗山)’ 이라 부르라구 했다는 겨. 나라의 큰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준 명산이니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말이여. _p144 <제4부 김치의 운명을 바꾼 좌구산>

죽리마을은 사방이 넓은 들판으로 뒤덮여 있어. 김득신은 해 질 녘에 어느 집 난간에 기대어 서쪽 들녘을 바라보다가 술에 취한 듯 풍경에 취했던 모양이며. 아마 하늘엔 고운 비단자락을 펼쳐놓은 양, 저녁노을이 펼쳐져 있었을 겨. 노을에 물든 저녁 들녘은 원앙금침을 깔어놓은 신방마냥 고요하면서도 아늑했겠지. 그 모습에 팬스레 누가 휘저어놓은 듯 맘이 일렁거렸을 테구. 흥취에 젖어 시 한 수를 읊구 나서, 김득신은 주막에 들어가 주모랑 객쩍은 농을 주구받으며 농주 한잔했을지도 몰려. _p168 <제5부 넓은 들을 품고 있는 죽리>

솔모루 샘이 지금은 그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샘 둘레에 높게 시멘트로 담을 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라면 더 좋았을 겨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샘가에 쪼그리구 앉아 옛 전설을 떠올리면서 얼굴이라도 비춰볼 수 있을 텐데 말이여. 속이 시켜멍든 하얗든 샘물은 그 사람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주겠지. 그러면 샘물에 거울처럼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옷매무새를 여미구 매만지듯이 흐트러진 맘을 가지런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여. _p207 <제6부 마애불과 미륵불이 지켜주는 남하리>

농한기에 베를 짜다 졸리면 바가지에 고드름을 따놓구 입에 하나씩 넣어가며 베를 짰어. 그런데 남편이 나 살아 있으면 베를 돌리는 장단도 신바람이 나겠지만, 남편이 먼저 가버려 없으면 뭘 신명이 그리 나겠어. 남편이라도 있으면 동지섣달 엄동설한보다 매서운 시집살이라도 따뜻한 남편 품이 녹신녹신 녹여줄 텐데 말이여. 그러니 그저 나오느니 한 숨이요, 눈물이었을 겨. _p248 <제7부 굽이굽이 인생길, 노래로 넘어가세>

| 지은이 소개 |



글 | 오미경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났으며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동화를 쓰는 일이 행복한 자칭 철없는 동화작가다. 1998년에 등단해 《교환일기》(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줘)《금자를 찾아서》(신발귀신나무)《사춘기 가족》(일기종 뽀 날) 등을 펴냈다. 2012년 《사춘기 가족》으로 올해의 아동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그림 | 손부남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83년 청주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서울, 대구, 부산, 미국 등지에서 22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단체전을 열었다. 현재 충청북도 진천공예마을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정광의

언제나 변함없는 자연이 고맙고 좋아 사진에 담고 있다. 오래도록 자연에 영감을 맞추다 보니 이제 자연의 입장에서 못 생명들이 보이기도 한다. 2013년 <충북의 산>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해에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사진협회 청주지부 지부장과 충북예총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진집 <충북의 산>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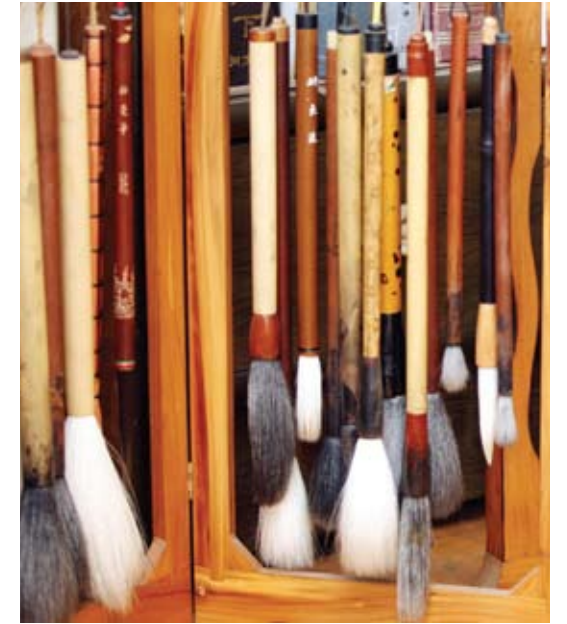


충북의 젊은 예술가

한지를 뜨고, 연꽃을 키우는 서예가 이희영

글 _ 박소영 / 사진 _ 육성준

“이제 ‘이름 값’하는 서예가가 되고 싶어요”



▲ 서예가의 붓에는 각기 다른 사연이 있다.

“농사짓는 만큼 마음을 내서 글자를 써요”

낮과 붓을 든 남자. 서예가 이희영(43)의 얼굴은 햇빛에 잔뜩 그을려 있었다. 농사꾼과 서예가, 그리고 한지를 만드는 그의 일상은 분주하면서도 정갈하다. “요즘에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연꽃을 키우고, 한지를 만들어요. 저녁에 화실에 들러 서예를 쓰죠. 한번 일을 하면 밤을 새서 하기도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도 작업실에서 종이와 먹을 마주할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세 아이의 아빠가 된 서예가는 오롯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귀땀한다. 하지만 그의 고단한 일도 어찌보면 닦은 구석이 많다. 연꽃을 키워 연꽃차를 만들어서 팔고, 한지를 만들어 자신의 작업에 쓴다. 서예를 하기 전 2년 동안 도예에 전념했던 그의 숨은 이력까지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공예’로 귀결된다. 전각도 따로 배웠다. 손으로 하는 그 무엇에 그는 매료돼 있고,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8년 전 고향 미원 어암리로 내려와

이씨는 2006년 미원면 어암리로 갔다. 4대째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그는 1000평에 닥나무를 심었다. 몇 년이 지나 2009년 첫 수확을 했다. 2010년 솔피한지연구소를 간판을 걸던 날 장승을 세우고 축제를 벌였다. 서예가들인 신철우, 정순호씨가 장승에 각각 글씨를 썼다. 그가 고향으로 간 이유는 한지 때문이었다. 서예가에게 한지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었다.

“닥나무를 심었죠. 닥나무를 심으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고향으로 왔고요. 4년 만에 수확해서 한지를 만들게 됐어요. 화학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가 만드는 한지는 값을 매기기가 어렵다. 자신의 작업에 사용할 만큼만 만든다. 때때로 한지 공예를 하는 작가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만큼만 생산한다.

◀ 이희영 서예가는 마른 닥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중한 재료다.



▲ 술의 이회영의 작업실 간판에는 그가 하는 일들이 기록돼 있다. 서예, 전각, 캘리디자인, 한지 연구.

◀ 그는 매일 글씨를 쓴다. 요즘엔 농사짓는 만큼 마음을 내서 글을 쓰려고 한다. 정신이 담긴 글은 때때로 그의 삶을 지켜주었다. 종이와 먹을 마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최고 한지 장인들 만나 기술 익혀

서예가가 만드는 한지라고 해서 기본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킨다. 1996년 원광대 서예학과에 들어간 그는 99년 타과 전공수업을 듣다가 한지에 매료돼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2000년 그의 원광대 서예학과 대학원 논문도 한지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2006년엔 한지공부를 더 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을 찾아갔고 2010년까지 모든 기술을 익혔다.

“옛날에 물질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물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탄력 있는 종이가 만들어져요. 물도 중요한데 예로부터 어암리는 상급수로 물이 좋은 마을이에요.”

한지를 만드는 일은 과정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10월 말에 닥나무를 심어 3 월초 수확한다. 이후 증기로 찌어 닥나무의 껍질을 벗긴다. 건조하면 백피가 나온다. 물에 불려서 겉껍질인 청피를 벗겨내는 것이다. 콩대재로 잣물을 만들어 표백한 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자연표백을 반복한다. 그러면 해리작용을 통해 ‘닥죽’이 되는 데 지통에 넣어 물을 채운 뒤 닥풀을 넣어 고르게 섞어 섬유질이 분산되도록 한다. 그는 황춧규를 직접 키워 닥풀로 쓴다. 식물성점제로 만졌을 때 끈적이지는 않지만, 점성이 있다. 이후 종이를 뜨게 된다.

전통에 무관심한 사회

“서예에 한지와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종이에 쓰느냐에 따라 먹의 번짐이 달라지죠. 한지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100% 제어하지 못해요. 반면 화선지는 먹의 농담을 조절할 수가 있죠. 한지가 가격도 비싸도 편리성도 떨어지다 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임란 이후 조선 후기에 때 한지가 쇠퇴하다가 1980년대 다시 한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하지만 새마을 운동으로 지천으로 있었던 닥나무, 뽕나무가 한순간에 베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닥나무 재배가 시급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닥나무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어요. 점차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화선지는 목재펄프를 가공해서 만든 단섬유이지만 한지는 섬유질로 종이 자체가 숨을 쉰다. 천 년이 넘게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도 그 이유. 손수 만든 종이 위에 그는 한글자 한글자 글을 써내려간다. “서예는 지고지순한 일이지. 서예는 정신이에요. 아무리 글씨를 잘 쓴다고 해도 정신이 빠져있다면 그 글씨를 쳐다보지도 않죠. 이완용은 당대의 명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김구의 글씨를 더 대단하게 여기죠.”

조상들은 한지 위에 붓으로 모든 걸 기록했다. 서예를 쓴다는 것은 고전을 바탕으로 문사철, 시서를 기본으로 공부해야 하는 일이다. 요즘에는 서예가 취미 혹은 수행의 개념이지만 과거에 서예는 삶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 서예는 과거의 일로만 여겨지고 있다. 사람들은 붓 대신에 펜과 좌판을 두드린다.

젊은 서예가로 살면서 그는 참 많이 힘들었고, 또한 그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은 국민급 인사가 오면 붓을 쥐어 주고 글씨를 쓰게 해요. 북경올림픽에서는 ‘문방사우’를 테마로 공연까지 했죠. 중국이 문방사우의 시조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모든 문물의 시작이 문방사우인데 우리는 있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최근 원광대는 세계 최초로 서예과를 만들었지만 폐과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이제 세계 최초의 서예학과라는 타이틀은 중국이 가져가게 되겠죠. 중국에는 40여 개 대학에 서예학과가 개설돼 있어요. 지금 서예가들이 해야 일들이 많아요. 당장 옛날 서적을 복원하는 것도 서예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정부는 이에 관심조차 없고 손도 대지 않고 있어요. 서예는 정신인데 세상은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하죠.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기억해낼 수 없어요.”





▲ 글씨를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에 새긴다. 전각을 통해 누군가에게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선사한다.

한 번도 공모전에 작품 안 내

그는 서예가로 살면서 한 번도 공모전에 작품을 내지 않았다. 소위 주민센터에 열리는 강좌에도 강사로 나서지 않았다. 서예의 대중화는 필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았다는 것. “일단 서예작가는 작품을 팔아서 자생할 수 없죠. 또 서예 강좌가 대중화되면서 소위 너무 많은 작가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공모전이 생겼고, 여기서 상을 받으면 작가라고 으스대죠. 작가는 철학이 필요한데, 기능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과거에는 5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서예가로 끼어주지도 않았다. 아직은 너무 젊어서 세상을 알지 못한다고 선배들은 생각했다. 마흔을 넘은 이씨는 “나이로 봐도 지금이 딱 과도기예요”라고 말했다. 젊은 서예가로서 조명을 받았던 그때 그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다. 재료에 대한 실험도 많이 했고, 글씨를 새긴 방석 등 문화상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붓으로 퍼포먼스를 해 주목을 받았고 그 해 부인 박희선씨와 함께 부부전시회를 열었다. 시인 아내가 쓴 시에서 예가 남편은 글을 썼다.

현대서예는 캘리그래피로 새롭게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현대 서예는 자유로운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즘에는 글씨를 종이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것까지 대학에서 배우고 졸업해요. 서예인에게 캘리그래피는 새로운 작업의 통로이지만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 세계에서 스타가 되기 쉽지 않죠.”

“서예는 좋은 글만 쓰잖아요”

그는 요즘 “농사짓는 만큼 마음을 쓰자”라고 곱씹는다. 농사는 그의 소중한 밥벌이다. “2008년 마을 조경을 위해서 연꽃을 심었어요. 3년차가 되니까 수익이 나더라고요. 연꽃차를 만들어서 팔게 됐죠. 연은 버릴게 하나도 없어요. 연꽃차, 연잎차, 연수술차가 있죠. 연근, 연대, 연꽃도 다 사람을 이롭게 해요. 올 여름밤 연꽃이 환하게 피었을 때 마을 분들과 잔치를 열 계획이에요.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공연하는 친구들을 초청해 같이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서예가로서 그는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제 글씨 값’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의 표정은 다부졌다. “새로운 시대 서예는 무얼까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죠. 생각한 것을 주저없이 펼쳐보았고, 많이 버리기도 했어요.”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글을 쓰고 공부를 계속하는 게 하루하루의 목표다. “서예에서 나쁜 글씨 쓰는 것 봤나요. 이미 세상에 필요한 말들은 다 누군가가 했어요. 공자, 맹자, 예수, 석가모니 모두들 글을 남겼죠.”

어릴 적 아버지가 쌀 한가미를 주고 동네 서당에 이씨를 맡겼다고 한다. 그때부터 옛 글들에 빠졌다. 그 글들은 항상 그가 힘들 때마다 잡아주었다. 글씨는 어찌 보면 위력적이다. “8시간 내리 몰입해서 글씨를 쓰고 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정신을 담아 쓰기 때문이죠. 서예를 쓰는 건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고 잘 하고 싶은 일이지요.” 

C-컬처

3.0



통합청주시 문화브랜드를 찾아서

글 _ 변광섭 / 사진 _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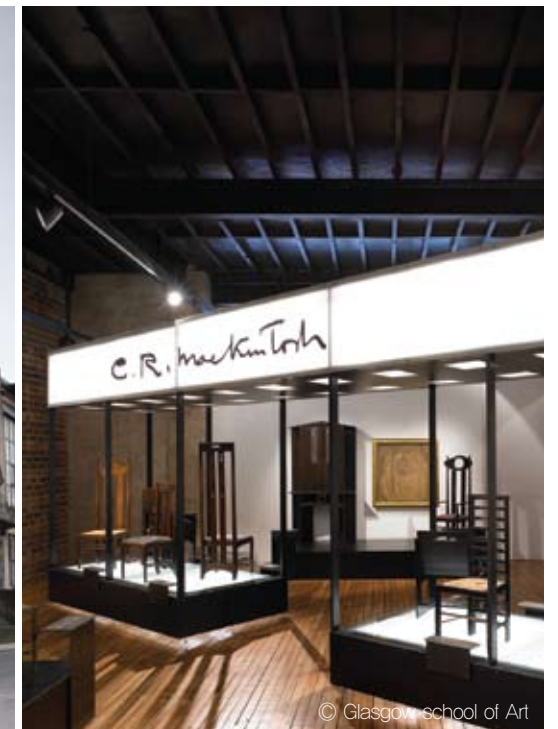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위치한 글라스고(Glasgow)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구 60만의 글라스고는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 무역, 건설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이 쇠락하면서 이 도시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 많은 공장들과 빌딩들은 불이 꺼져 황량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하나 둘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와 고용하락, 도시빈민과 갱집단의 난무 등 암흑의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1983년, 시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며 벼랑끝 전술을 마련했다. 바로 불 꺼진 공장건물을 활용해 음악과 공예, 미술과 축제로 특화된 창조도시를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이 도시에는 건축가·디자이너·공예가로 명성을 얻은 매킨토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산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장르간 통섭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건물과 도시 이미지, 각양각색의 상품에도 그의 예술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위치한 글라스고(Glasgow)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구 60만의 글라스고는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 무역, 건설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이 쇠락하면서 이 도시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

다. 그 많은 공장들과 빌딩들은 불이 꺼져 황량하기 짝이 없고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하나 둘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와 고용하락, 도시빈민과 갱집단의 난무 등 암흑의 도시로 전락한 것이다.

1983년, 시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며 벼랑끝 전술을 마련했다. 바로 불 꺼진 공장건물을 활용해 음악과 공예, 미술과 축제로 특화된 창조도시를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이 도시에는 건축가·디자이너·공예가로 명성을 얻은 매킨토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산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장르간 통섭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건물과 도시 이미지, 각양각색의 상품에도 그의 예술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공장과 청과물 시장 등의 상업지구였던 머천트시티 일원을 시정부가 매입을 하면서 단계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공장의 낡고 허름한 이미지, 창고의 스산한 분위기, 골목길의 촌스러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미술과 공예클러스터로, 음악과 공연의 메카로, 국제적인 컨퍼런스의 장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주민 중심의 시민위원회를 통해 자율과 소통과 참여의 마당을 만들었다. 이 결과 글라스고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지구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문화자원의 특화, 장르간 통섭과 융합, 그리고 인재활용이 반전의 미학을 낳게 한 것이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불모지 사막에 오락과 유흥을 특화하면서 관광도시로 주목받았지만 도박의 도시라는 오명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정부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컨벤션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설치미술로 도시 이미지를 바꾸었으며 융복합 공연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등 창조도시, 콘텐츠 도시로 변모하는데 성공하면서 매년 3천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어디 이 뿐이던가. 세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도시 전체에 스토리텔링하면서 ‘사랑의 도시’로 변모시킨 이탈리아 베로나, 닭털을 뽑던 공장이 예술가들의 아파트와 명품숍으로 변신한 뉴욕의 소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조화를 통해 도시 전체를 문화관광특구로 활성화한 일본의 가나자와, 낡은 건물에 예술의 온기로 가득 채우고 공공디자인으로 특화시킨 요코하마, 섬마을을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재생시키면서 매년 주민의 100배가 넘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나오시마,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를 연계시켜 도시재생에 성공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부르강을 경계로 전통과 모더니티의 조화를 통해 도심재생에 성공한 그라츠를 주목하자.

또한 ‘느리게 살기’의 화두를 던진 슬로시티 본고장인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화력발전소를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드는 등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런던, 인간 중심의 교통과 문화정책으로 차별화 한 파리, 전후 폐허공간을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로 재탄생시킨 네덜란드 로테르담, 탄광공장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으로 재생하면서 광산도시에서 예술을 깨는 도시로 변화를 이끈 독일의 에센 등 문화

도시, 창조도시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성공한 도시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공간적인 자원을 찾아 대표 브랜드로 특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양한 장르간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재생·축제·관광·교육문화 등과 연계시켜 성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집적화와 집중투자로 이슈에 성공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으로 지역 문화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선도하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우리는 이미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브랜드와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에게는 행복한 일상을, 세계인들에게는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름하여 도시 문화브랜드 또는 지역문화 DNA라고 하는데 문화유산을 비롯한 역사적 가치, 차별화된 공간, 문화적 잠재력,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 등을 통해 우성인자를 추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의 문화브랜드는 말처럼 쉽지 않다.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청주시만 해도 직지, 읍성, 교육, 비엔날레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연계사업을 전개하지만 시민들의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주의 대표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해야 하고,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특성화해야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통합 청주의 문화브랜드를 찾는 첫 걸음을 천년의 거리 성안길에서 시작했다. 성안길은 민본중심의 지방행정을 실천했던 곳이며 민족 지사들의 혼이 살아있는 역사현장이자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임진왜란 최초로 내륙전투에서 승리한 곳이다. 지금으로부터 422년 전의 일이다. 일제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가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던 가슴 시린 상처가 남아 있다. 망선루는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 때 공민왕이 청주에 6개월간 머무르면서 과거시험 장소로 사용했고, 울곡 이이가 청주 목사로 있으면서 만든 서원향약은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 사회에 보급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다.

직지의 탄생지 흥덕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는 1455년에 나온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당시 청주 일원에는 금속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자와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百)이라는 질 좋은 종이를 만드는 장인, 그리고 한 권의 책을 편리하게 사용토록 엮는 배접의 기술 등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장인들의 기술이 융복합된 위대한 창조물인 것이다. 이를 통해 대량 인쇄와 신속정확한 보급 등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하지 않았던가.

초정약수 원탕 앞에 서니 헛헛한 마음 감출 길 없다. 세계 3대 광천수라는 천혜의 자원을 방치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원흥은 누구일까. 행여 나는 나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기하지

않았는가. 자랑스러움보다는 슬픔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곳은 1444년에 세종대왕이 123일간 행궁을 짓고 한글창제를 완성하는 등 수많은 정책을 펼친 곳이다. 용비어천가를 짓고 박연에게 악기를 만들어 시연토록 했으며, 청주향교에 책을 9권 하사하며 학문을 장려했다. 주변의 노인들을 초청해 양로연을 베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를 통해 조세법을 개정한 뒤 시범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성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에 들어서니 조춤조춤 망거미가 들기 시작했다. 1946년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 수 천 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10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17개국으로 수출했던 곳인데 진한 땀방울과 희망의 고동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공예비엔날레를 이곳에서 개최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불꺼진 담배공장에 문화의 불을 켜는 새 시대를 열었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핵심문화—콘텐츠—산업—관광—향유로 이어지는 복합랜드마크를 갖고 있다. 랜드마크의 기본은 어뮤즈먼트(amusement)다. 지역을 대표하는 철학과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차별화된 디자인과 문화콘텐츠, 지역문화의 글로벌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향유하는 감성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100만 시민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며 함께 달리는 세상, 세계 으뜸도시로 가는 첫 걸음은 청주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외북 · 화계 · 송절 마을 이야기 “월명산으로 소풍, 까치내로 천렵”

정리 _ 이병수 / 사진 _ 김대중, 원범식

원격 무선조종 촬영 장비인 헬리캠이 청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북대동’ 상공에서 북쪽인 강서2동을 항공 촬영한 모습입니다. 첨단산업체가 몰려있는 청주공단에 공장들이 바둑판처럼 즐비하고 그 뒤로 마을, 들판, 구름이 미호천 까치내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산업과 사람의 마을이 제2순환로를 경계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급속한 변화가 계속되는 이 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제 저 마을과 들판이 청주테크노폴리스로 개발됩니다. 152만㎡ 면적에 총 사업비 6,438억원을 들여 청주광역권의 새 성장동력이 될 첨단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사업 시행자인 (주)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여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외북 · 화계 · 송절 3개 마을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토박이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마을의 역사와 문화, 생활사를 구술과 기록사진 촬영, 사료 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월명산으로 소풍, 까치내로 천렵’이란 제명으로 만나게 될 이 들 3개 마을의 이야기,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통해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월명산으로 소풍

“쌀이 어디 있어? 콩깻묵으로 밥하고, 또 도토리가루로 끼니 때우고 그렇게 살았어.” 가난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생존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하루를 꼬박 논밭에 매달려도 여섯 식구 입에 풀칠 걱정이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보릿고개 그 때 그 시절- 소풍 도시락 한 입 물고 배시시 웃는 아이들 재롱에 한 번 웃게 되었다.



까지내로 '천렵'

“남한제사 다닐 때는 노동절이면까지내로 천렵을 갔었어. 원평 앞에 가게가 하나 있어서 밤에도 놀러 가고 했지.까지내 보트장의 보트를 타다가 치마저고리 입고 빠져서 다 젖고, 그래 갖고서는 독에 잔디밭에서 말리고 그랬어. 사람들이 노동절 날이라 엄청이 많았지. 남한제사뿐 아니라 청주에 있는 회사는 거기가 놀이터였어.”



마을 뒷산 왕암

“어려서 친구들과 여기 올라가 뛰고 놀았어. 그러면 바위 아래서 쿵 쿵 소리가 났어. 신기했지. 마을 옆에 공장이 들어서고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수맥이 끊긴겨.”(화계동)



터주

“처음에 시집을 오니께 짚으로 뽕죽하게 해서 씌워놨더라고. 그 안에 향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는 보리를 타작해서 향아리에 있는 것은 쏘아 내고, 새로 타작한 보리를 가득 채워 놓았어. 쏘아 낸 보리는 찢어서 떡 해 먹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서 보리 쏘아내고 또 벼를 채워 놓고 했지.”(외북동)



쌍호드기 재현 정영권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내가 할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부모님은 6·25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청산리 벽계수야~’ 이런 거. 할아버지는 호드기 통에 호드기를 넣고, 늘 품에 끼고 다니셨어요. 농사지를 적에 벼를 벤 다든가, 모를 심을 때 풍장놀이를 하잖아요. 그때 이걸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팽과리를 치잖아요. 모 다 심고 불더라고요. ‘뽀뽀 뽀뽀뽀’ 이게 다 심었다는 소리예요.”(상신동 출신)



내곡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건너신정에서 오랫동안 만난 소달구지.(송절동)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슈퍼'

“따끈한 두부가 왔습니다. 얼른 얼른 나오세요, 맛좋은 새우젓, 오징어 젓 · 꼴뚜기 젓갈, 밀가루, 설탕, 미원, 간장, 두부, 라면, 콩나물, 청국장, 어묵, 돌김, 도토리묵, 빵, 과자, 음료수, 막걸리, 배추, 양파, 대파, 열무, 열갈이, 무, 마늘, 고추, 감자, 호박, 오징어, 싱싱한 자반고등어나 동태 코다리, 계란, 식빵, 달콤한 과일, 참외, 사과, 바나나~.”



외판집 간판

이 근방에 우리 집이 하나니까 외판집이잖아. 우리 빼고 누가 있어? 우리 아들과 둘이 상의해서 외판집으로 이름 짓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거여. 메뉴는 보리밥도 하다가 빼 버리고 지금하고 똑같이 닭하고 오리하고 보신탕.



소몰이꾼 한성현

“상주(우시장)에서는 사흘 아침나절에 청주에 댔지. 화령에 오면 저녁 지나고 보은오면 깜깜한 밤중이야. 어디 밥해달라고 할 데가 있나. 밥은 못 해먹는 거. 상주서 꽃감 꼬치 사서 하나씩 빼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오는 거지. 산길로, 산길로 오는 거야. 사흘티(살티)부터 완전히 산골로 접어드는 거야. 오다 보면 멀리 푸르스름한 불이 보일 때도 있는데 처음에 절이 있는가 보다 했어. 그런데 소가 소나무 속으로 숨잖아. 내가 모닥불을 놓고 쪼이다 보면 그 불빛이 사라져. 그러면 소귀에다 대고 소리를 뻗 질러서 소를 일으켜 세우고 또 걷는 거야. 가덕쯤에 오면 먼동이 트는데 입성에는 땀이 가득 찼지. 가덕에 와서 아침 떠먹고 그 길로 마방에 소 대주고 ‘이건 누구 소’라고 말해주면 일이 끝나는 거야. 도착하는 시간이 점심 전이었어. 한 오전 11시쯤.... 그 때 마방이 영운동에 두 군데가 있었어.”

“통합 청주시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는?”

정리 _ 편집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사랑하며, 통합 청주시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브랜드를 발굴하자.’

지난 1946년 이전까지 두 지역은 원래 하나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그러하고 고려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청주군, 청주부, 청주목, 서원경 등 행정의 단위와 이름만 달랐을 뿐 하나의 지역이란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다. 1946년 청주와 청원 두 개의 지역으로 쪼개진 이래 68년만인 올 7월 1일부터 다시 하나의 ‘청주’로 복귀하였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분리의 세월이 있었기에 두 지역간 이질감의 존재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서로 다른 브랜드를 키워왔다.

이제 통합된 ‘청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브랜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차 C-컬처포럼이 지난 6월 19일 청주문화산업단지에서 ‘통합시 문화 정체성,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려 청주시의 특색있는 문화

브랜드 전략 설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포럼에서는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이병민 교수의 기초발제에 이어 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윤석위 위원장(녹색청주협의회 위원장)과 청주문화원 권영애 사무국장, 청주예총 문길곤 사무국장, 청주민예총 오정균 사무국장, 충북학연구소 김양식 소장, 청주시립예술단 김대중 사무국장, 예술상회 김종현 대표(문화기획자)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변광섭(문화예술부장), 정규호(비엔날레 부장)이 나섰다.

사무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포럼 진행을 위하여 패널들에게 브랜드 전략에 관한 공통의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번 포럼을 기획하였다.

〈패널 사전 공통질문〉

1. 청주의 문화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외의 지역사람들이 청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How others see us.)
3. 우리 청주사람들이 이외의 지역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How we want to be seen.)
4. 우리 청주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We see ourselves.)
5. 그동안의 청주 문화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되었다면, 어떤 문화브랜드가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면, 어떤 문화브랜드가 어떻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6.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문화상징)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브랜드(문화상징)를 잘 만들어가는 방법(과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이디어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안종철 사무총장 : 오늘은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주의 문화정체성을 주제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다시 한 번 지역을 재정비해 우리 도시의 정체성과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병수 차장(사회) : 오늘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병민 교수가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전개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패널들께서는 공통질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역의 차별성이 중요
타지역과 구별되는 청주의 유형 찾아야....**

이병민 교수(기초 발표) : 간단한 주제가 아닌 것은 모두 잘 알 것이다. 오늘 당장 청주의 통합 문화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청주의 대표 문화브랜드를 구축에서 나타날 쟁점과 전략, 설계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에서 문화브랜드는 중요한 화두이다. 핵심은 ‘지역을 다시 봐야 한다.’였다. 예전에는 정체성(Identity)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차별성(Difference)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SNS를 비롯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 놀라운 시대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정체성을 토대로 어떻게 포장하고 브랜드화 하는가가 중요하다.

청주의 대표 브랜드 ‘직지’를 예로 들자. ‘직지’를 도시 브랜드, 상표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과연 청주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채로 홍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브랜드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도시 브랜딩 메이킹이 중요하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맥락에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내부인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외부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에는 간극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홍보하면서 청주시민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외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의 간극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 지역 내에서 원 팀(One Team), 원 보이스(One Voice)를 어떻게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유형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맵핑 사업’이 좋은 예다. 초등학교, 장애인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문화 지도화, 즉 맵핑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트위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년, 청소년들도 참여를 독려하여 왕성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행정 주도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바람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그 사업을 왜 하는 거지, 그게 뭐지?’ 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 CIO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 기업 이미지너리 오피서(Imaginery Officer)라는 의미이다. 리더의 상상력, 창의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이다.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나 빌게이츠처럼 말이다. 지역의 다양한 리더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독특한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원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문화산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직지, 교육 보다 ‘공예’가 그나마 바람직한 브랜드
반면, 교육도시는 젊은이들의 관심 브랜드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

김양식 소장 : 문화브랜드는 사안이 복합적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주최 측에서 제시해준 6가지 주제토론을 중심으로 발표하겠다.

통합 청주시의 문화정체성은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직지를 예로 들어 보자. 청주시가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천문 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진행한 사업이다. 한 때 시민운동 차원에서 직지 찾기 운동이 있었고, 직지와 청주 정체성에 관련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시민운동 동력도 상실했고, 박 제화된 사업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부분적으로 인지도와 장소 마케팅은 성공했다. 그러나 직지 전략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과연 높였 는가 질문하면 높은 점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원군 지역을 아우르는 접근은 거의 없었다. 청원군에 대한 접 근 없이 청주 도심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교육 도시 청주 문화브랜드는 장소성, 상징성, 내발성, 창의성이 결여있다. 1960년대 전주와 함께 인식되어 온 교육도시 브랜드는 도청소재지로 서 학생 수가 많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용도 폐기된 브 랜드라고 생각된다. 공예도시 브랜드는 6가지 요소 중에서 5가지를 충 족하고 있다. 하지만 공예브랜드의 약점은 내발성에 있다. 시민 주도 의, 시민 공감의 공예도시가 형성되었는지 질문해 보면 부정적이기 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 공예, 직지 이 세 가지 브랜드 가운데 정체 성과 지향점에 대해서 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예도시’ 문화브랜드가 통 합청주시에 그나마 바람직한 브랜드가 아닐까 한다.

김대중 사무국장 : 청주는 교육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교육 도시 브랜 드는, 젊은이들의 관심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지의 경우, 20 년이 됐지만 외지인 입장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

이종현 대표 : 청주시 문화 브랜드로 교육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주 위 분들에게 물어보니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가 아녘니까’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다. 청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교육 도시라고 생각한다. 청주의 대표이미지로 직지나 공예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전문가들 외 에는 공예비엔날레를 보러 오지 않는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 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청주가 불편한 도시, 느린 도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청주라고 생각한다. 청주만의 특징, 느린 도시 의 특징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20년 전에 시작한 직지문화 사업으로 직지 슈퍼, 직지 자전거 등 직지 라는 간판이 많이 생겨났었다. 그때 동네 주민들께 이유를 묻자 ‘직지 를 쓰면 간판을 공짜로 바꾸어준다고 해서 ’라고 답하였다. 그 이야기 를 듣고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고, 자체 평가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브랜드가 아닌, 청주 시민 모두의 지식 경험을 취합하고 공유해서 집중했으면 한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문화원형들이 시민에게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전략 필요

윤석위 위원장 : 문화브랜드에 대해서 공통의 의견을 정리하면, 직지, 교육 등이 언급되고 있다. 먼저 그동안의 문화브랜드였던 직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실제로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평가된, 수준 이 낮은 단계의 브랜드 전략만이 있었다. 금속활자의 제작 기술, 인쇄 문화 변천, 체험 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신문에서 한 청주 대학생이 ‘청주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컬럼을 쓴 것을 읽었다. 그 기사의 작은 제목으로 ‘딱히 떠 오르는 것 없는 지역’이라고 달아 놓았다. 청주가 실제로 그렇다고 수긍 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이유가, 이야기의 부족, 특히 감 동적인 이야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고 이어주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C-컬처 포럼에서 일어났으면 한다.

오정균 사무국장 :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직지가 소개되면 흥덕사 지 고인쇄박물관으로 견학을 간다. 단순히 전시물만 전시할 것이 아 니라 공원을 조성해 잔디밭 텐트도 치는 등 시민과 친해질 수 있는 전 략이 필요하다.

사실 청주의 명소 중 하나가 TV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영화배우 최민수 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가로수길을 지나가는 장소이다. 청주의 가로수 길 이 드라마의 명장면에 등장할 만큼 푸르고 좋지만, 지금은 ‘모텔촌의 관문’이라는 부정적인 인상도 생겨났다. 이처럼 문화브랜드라는 것이 관리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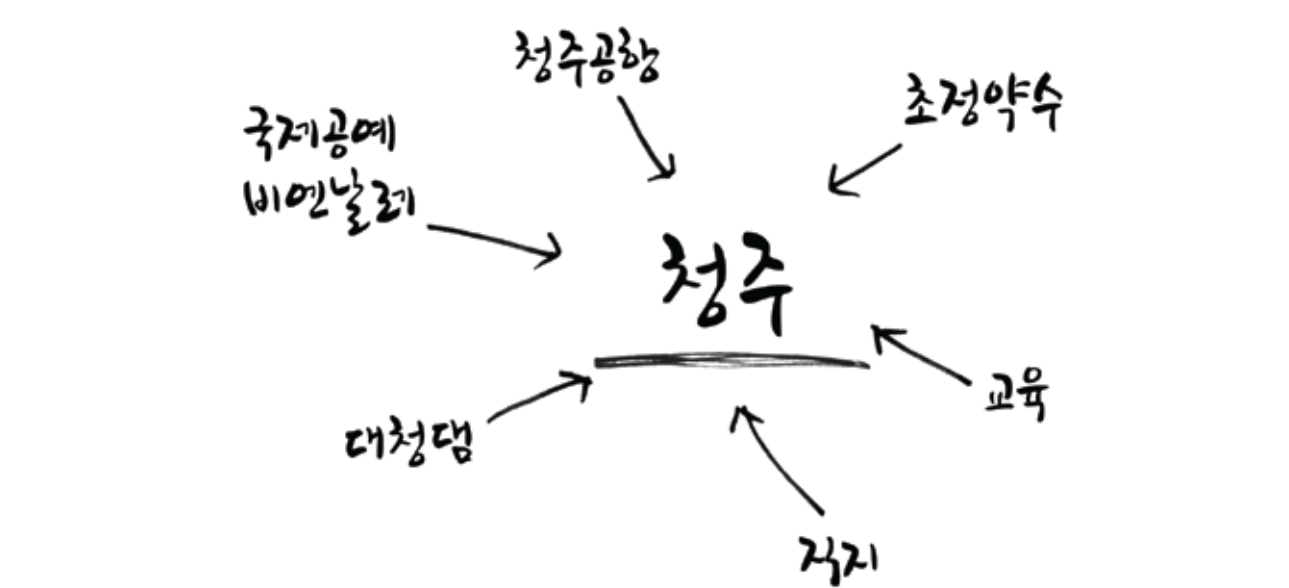
우리 청주 도심에는 국보가 있다. 국보가 도심에 있는 도시가 실제로 매우 드물다.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국보 문화재가 있 지만 시민과의 친숙성 면에서 보자면 부족하다. 청주의 문화상징들이 시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주 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문길곤 사무국장 : 화합과 소통에 따른 문화브랜드 설정이 중요하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신중하게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 소 통없는 결정은 성공 못하는 사례가 많다. 몇몇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예술 · 시민 단체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브랜드 필요하다.

저는 청주 사람이 외부 사람들에게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와 삶의 여유 를 느끼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세종시에는 없고 청주시에는 있 고, 공주 · 천안 · 대전에는 없고 청주에는 있고, 일본 중국에는 없고 청 주에는 있는 것이 청주의 대표 문화브랜드가 아닐까.

그동안 청주 문화브랜드 전략은 지속성과 연계성 면에서 성찰해야 한 다. 각종 단체와 시민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부분이 부족했다. 시민, 행 정가, 전문가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선행하면서 만들어 나 가야 한다.

권영애 사무국장 : 청주의 우암산, 상당산성처럼 10분 내외에 산에 오 를 수 있는 도시가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 전국 227개의 문화원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청주에 답사 오는 경우가 일 년에 서너차례 이상 되었는데, 최근에는 한 곳도 오지 않는다. 주로 고인쇄 박물관, 상당산성, 청 남대를 방문한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지 청주에 오겠다는 전화를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다. 청주 스스로 볼거리 와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주는 자연도 좋다. 상당산성 등 자연 친화적인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곽명희 사무국장 : 오신 손님들을 데려갈 때 고심하다가 데려가는 곳이 단체 신재호 사당, 청남대, 문의 문화재 단지, 운보의 집. 그리고 마치 막으로 조정약수에서 목욕 체험을 추천한다. 조정약수를 한 번 이용한 사람들은 ‘좋은 곳을 왜 버려두고 있느냐’, ‘게으른 것 아니냐’며 좋은 자 원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어쩌면 가까이 있으니 귀한 것 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목욕 한 번으로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리고 조정약수에는 세종대왕 행궁의 이야기가 있다. 이 둘을 접목해 서 문화브랜드로 발전시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세종대왕 이야기를 활용하면 세종대왕의 철학 과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김대중 사무국장 : 직지와 공예 문화 브랜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직 지의 경우, 역사만 있지 그 속에서 사람이 부재하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라는 캐치프레이즈 밖에는 못들어 보았다. 공예의 경 우, 청주가 공예도시를 꿈꾼다면 아트예술, 공예철학을 다양하게 중 첩해야 한다.

정규호 부장 : 청주가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이다. 아시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거를 때 접전 지역이었다. 다시 한 번 통일 문화를 피울 수 있는 도시이다.

공예비엔날레는 1999년 직지를 만든 장인정신을 모티브는 만들어졌 다. 지난해 비엔날레에서는 버려지는 도시의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행 사에 시민 3만여명이 참여했었다.

시민의 힘으로 ‘공예도시’ 시민으로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종철 사무총장 : 다음 포럼에서는 외부인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브랜드는 역사성에서 기인하지만 향후 타겟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 비스나 상품을 차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브랜드라 생각한다. 내 부, 외부 모두에게 인정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정체성 형성이 왜 중요한가. 자긍심,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민 교수 : 부산 국제영화제는 민초들의 힘으로 기반이 탄탄한 것이 장점이다. 자발성,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내발성이 결국 지속적이고 성과를 내는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화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을지 불편할지에 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변광섭 부장 : 더 많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정책화하고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다음 포럼에는 다양한 시민단체, 대학, 박물관, 미술관 등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병수 차장(사회) : 다음 포럼에는 일반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속에 진 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어렵듯이 옛 기억이 나겠지요

대팻밥처럼 말린 몸, 간장소스에 녹다 파절이와 공합 이루는 ‘청주삼겹살’ 이야기

글 _ 이재표 / 사진 _ 편집부



제주도 통시(재래식 화장실)나 지리산 자락에서만 꺼먹돼지를 기르는 게 아니었다. 어린 시절 웬만한 시골집 마당에는 흑돼지를 기르는 작은 우리가 있었다. 축산업이 아니었다. 개도, 닭도 한 마리, 두 마리씩 길렀다. 먹을 게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사람과 짐승이 먹을거리를 나눴다. 개밥을 주기 위해 마지막 한 술을 남기던 시절이었다.

돼지는 먹성이 좋아 물이 그득한 밥통에 머리를 박고 철벽철벽 소리를 내며 먹었다. 돼지의 먹이를 구정물, 밥통은 구정물 통이라고 불렀다. 원래 구정물이란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을 말하는 것이니 그만큼 가리지 않고 먹었다는 얘기다. 돼지를 서너 마리라도 기르는 집에서는 그 구정물이 모자라 손수레에 큰 통을 싣고 구정물을 걷으러 다녔다. 그래도 그 고기가 맛있었다. 껍데기를 깎지 않아 돼지털이 까끌까끌한 비겅덩어리도 없어서 못 먹었다.

기업형 축산이 아니다 보니 구제역 같은 돌림병도 없었다. 사실 구제역이라는 것이 발굽이 갈라진 동물들의 구내염 정도다. 치사율이 높다기보다는 전염성이 강해서 문제인 것이다. 옛날에는 혼자 시름시름 앓다 죽거나 병을 견뎌냈다. 집단사육이 아니니 ‘살(殺) 처분’이라는 살벌한 단어도 없었다.

정육점에서는 근고기를 팔았다.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흔치 않은 호사여서 삼겹살 같은 부위를 가려 팔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뭉텅뭉텅 썰어낸 고기는 신문지에 싸서 줬다. 심부름을 하면서도 축축하게 젖은 신문지 속의 물경거리는 손맛이 좋았다. 그만큼 돼지고기는 특식의 재료였다. 잘게 썬 비계는 잘 띄운 비지찌개와 궁합이 맞았다. 비계가 붙은 살코기는 김치찌개의 맛을 돋웠다. 돼지고기는 보조 재료지만 찌개의 격을 갈랐다. 구워먹든 삶아먹든 온전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마을에 잔치나 초상이 있을 때였다. 그런데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란단다.

돼지하면 떠오르는 ‘민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가 있다. 출처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다. 청주 어느 동네에선가 갓난아기가 덩치가 큰 돼지에 물려 목숨을 잃었던단다. 필경 사람들 손에 그 돼지도 숨통이 끊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기가 아깝다고 마을 남정네들이 나누어 먹었던단다. 그 결과는? 죽었다나, 배탈이 났다던가. 어디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외할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돼지와 관련해 이만큼 떠오르는 단상들이 많다. 지금부터는 삼겹살 얘기를 해보자.



삼겹살엔 원조가 없다. 삼겹살은 재료일 뿐이고 돼지고기를 구워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불을 갖게 된 그 때부터다. 그래도 ‘청주삼겹살’은 있다. 청주삼겹살의 전단계인 ‘시오야키’로부터 ‘대패고기, 간장소스, 파절이’ 등 세 개의 키워드로 대변할 수 있는 근현대의 청주삼겹살, 그리고 오늘날의 생고기까지 청주의 삼겹살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청주가 삼겹살의 도시가 될 판이다. 청주 구도심 상권을 대표하는 서문시장에 ‘삼겹살거리’를 조성하는 등 청주시가 의도적으로 삼겹살 띄우기에 나선지 2년여가 흘렀다. 사실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동안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2006년 12월 결국 청주시가 청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공식 확정한 음식은 ‘청주한정식(淸州韓定食)’이었다.

1년여의 연구를 거친 청주한정식의 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입맛을 돋우기 위한 음식으로 죽과 메밀전병이, 2단계, 본격적인 요리로 더덕구이, 각종(버섯·깻잎·고구마) 튀김, 소갈비찜, 삼겹살요리, 녹두빈대떡을 포함한 삼색전, 버섯요리 등이 상에 오른다. 3단계 밀반찬으로는 물김치, 도토리묵요리, 깻잎장아찌, 풋고추멸치조림, 생채나물, 산나물, 배추김치, 올갱이(다슬기)요리 등이, 4단계 후식으로 식혜와 과일 등이 제공된다.

차라리 청주정식이라고 이름을 짓지 못하고 청주와 정식 사이에 굳이 ‘한(韓)’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을 보면 자신이 없기는 없었나보다. 한정식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있는 정찬을 일컬으니 말이다. 오죽하면 20가지 요리와 반찬이 단채로 청주의 대표음식이 됐을까? 독보적인 청주음식은 없는 걸까? 당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올갱이와 삼겹살요리는 청주한정식을 구성하는 요소에 그치고 말았으니….

삼겹살은 재료일뿐, 요리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삼겹살은 요리의 재료일 뿐이다. 삼겹살 자체가 요리는 아니다. 삼겹살 조림이 됐든 삼겹살 구이가 됐든 조리방식이 추가돼야 비로소 요리다. 예컨대 적벽부를 쓴 중국의 문호 소동파가 항저우에서 벼슬을 할 때 개발됐다는 ‘동포러우(東坡肉)’은 중국의 대표적인 삼겹살 요리다. 소동파는 삼겹살점을 좋아했는데 바둑 삼매경에 빠져 양념이 완전히 졸아든 데서 이 요리가 탄생했단다.

더 나아가 단순한 삼겹살 구이가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청주가 삼겹살 구이의 원조(元祖)’라는 주장은 청주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요리의 시작은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삼겹살 구이를 포함한 모든 돼지고기 구이는 탕수육과 다르다. 탕수육은 돼지 또는 소고기를 잘라 녹말을 묻혀 튀긴 뒤 식초, 간장, 설탕, 야채, 전분 등을 끓여서 만든 소스를 부어먹는 요리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 구이는 어느 부위를 재료로 하는가, 굽는 연료가 무엇인가, 소금을 뿌려 굽는가 아니면 구운 뒤에 소금에 찍어먹는가 등의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삼겹살 구이 혹은 돼지고기 구이의 원조가 청주라고 우긴다면 50만 년 전의 베이징인, 호모에렉투스가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이라는 부위를 특화시켜 음식의 재료로 부각시킨 지역도 불행히 청주가 아닌 것 같다. 예로부터 장사수원이 좋기로 소문이 났던 개성상인들이 흔히 비계 또는 살코기로만 구분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비계와 살코기가 연달아 겹쳐 있는 갈비 아래 뱃살을 특화시켰고, 육질개량까지 했다는 것이다.

축산문화연구가 전성수씨는 월간지 미트저널에 연재한 글에서 “개성상인들은 돼지의 살코기에 그냥 비젯덩어리가 붙어있게 돼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계 끝에 다시 살이 생기고 또 그 끝에 비계가 붙게 하는 식으로 비계와 살이 번갈아가며 곁이 지도록 육질을 개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경기 지역 맛집 중에 ‘개성’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숯불구이나 불고기집이 유난히 많이 검색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주는 삼겹살과 관련해 아무 것도 내세울 게 없다.

오히려 다행이다. 감히 어느 고을이 삼겹살에 대해 원조를 주장할 것인가. 따라서 청주가 삼겹살의 원조임을 입증할 책임도 면책됐다고 생각하자. 대신에 청주삼겹살과 다른 지역의 삼겹살 요리에 차이점을 찾아내 이를 ‘스토리텔링’하면 그만이다.

전주의 잘난 척은 ‘맛 + 스토리’

‘전주비빔밥’이 그 좋은 예다. 비빔밥의 원조는 전주가 아니다. 비빔밥은 우리나라 전역의 보편적인 음식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비빔밥은 밥에 여러 가지 나물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즐겨먹는다. 각 지역 특산물이 재료로 사용되면서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했다”고 나온다.

그럼에도 백과사전은 “전주비빔밥이 유명하다”고 부연하면서 전주비빔밥의 차별성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한다. 전주비빔밥은 인근 임실에서 생산하는 쥐눈이콩으로 재배한 콩나물과 소고기 육회가 맛의 비결이라는 것. 이밖에 쇠머리를 고아서 낸 육수로 밥을 짓고, 달걀노른자는 날 것으로 사용하고 콩나물국과 함께 먹는다.

이쯤 되면 그냥 비빔밥과 전주비빔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파해야하는 것은 전주비빔밥의 맛과 유명세가 이미 비빔밥을 집어삼켰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빔밥을 전주의 요리로 알고, 전주식 비빔밥을 먹어야 제대로 된 비빔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2008년 11월 전라북도가 발행한 〈전북의 재발견〉중 ‘맛’편에는 ‘전주음식에는 재미가 있다’는 글이 있다. ‘재미’는 ‘손맛’의 전라도식 표현이다. 책은 “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국밥, 전주백반, 전주한정식, 전주돌솥밥, 전주오모가리탕, 전주막걸리 등은 그 이름만으로도 전주의 상징이 되어 있으며 이름 앞에 ‘전주’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제 맛을 낸다”고 자랑한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아니 우리는 전주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야한다’ ‘콩나물국밥은 팔팔 끓이지 않는다’ ‘밥공기에 담긴 날계란은 김 부스러기와 국물을 떠 넣어 미리 먹는다’ 등 지키고 따르라는 것이 많다. 숟가락으로 쓱쓱 비비고 싶어도,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고 싶어도, 날계란을 국물에 풀어 휘휘 젓고 싶어도 시키는 데로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이를 도리어 가르친다.

원조논쟁 말고 청주삼겹살은?

삼겹살에 있어서 원조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정리가 됐다손 치더라도 청주삼겹살 혹은 청주지역의 돼지고기 구이에 대한 근대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것은 청주삼겹살 스토리텔링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12년부터 청주 서문시장에 삼겹살거리 조성하고 있는 청주시도 ‘청주삼겹살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쏟고 있다. 청주시가 수집한 제보 가운데 하나는 “정육점에서만 고기를 살 수 있었던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에 고(故)박래봉씨가 옛 사직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열었던 ‘황해식당’이 청주삼겹살의 원조”라는 한 시민의 증언이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남문로 현 청주약국 인근에서 성업했던 ‘딸네집’ 또는 ‘만수네집’이 그 효시라는 제보도 있다. 이후 옛 서문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현재의 지하상가 입구에 있던 고속주점으로 말미암아 청주삼겹살이 전국에 널리 퍼졌다는 주장도 있다.

충북 최초의 사진기자인 김운기 전 충청일보 국장은 ‘딸네집’이 돼지고기 구이의 원조라는데 동의한다. 다만 ‘딸네집’의 메뉴는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금구이, 즉 ‘시오야키’였다고 한다. “청주약국에서 오성당 쪽으로는 식당이 즐비했다. 국밥을 파는 명랑식당이 유명했고, 연탄불에 돼지고기를 굽는 이른바 시오야키(しおやき・鹽焼)는 딸네집이 전국에서도 원조였다”는 것이다.

김 전 국장은 “청주약국에서 신약국, 오성당 방향으로 네 번째쯤에 ‘딸네집’이 있었다. 6.25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말에 문을 열어 1970년을 전후해 문을 닫았던 것 같다. 피난민들이 청주에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청주 시오야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김 전 국장은 또 “두껍게 썬 돼지고기에 굵은 소금을 뿌려 연탄불에 굽는 방식이었다. 당시엔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는 집이 많았다. 우리도 모충동에서 살면서 돼지를 키웠는데 ‘딸네집’ 사장인 진 씨와 거래했다. 진 씨는 키가 크고 배가 나왔으며 진장했다”고 덧붙였다.

일본말인 시오야키는 사실 소금구이로 순화해야 한다. 도시락보다는 벤토, 바지 대신 쫄면, 단무지보다 다쿠양이 더 자연스럽던 시절에 쓰던 말이다. 이 글은 기록 차원에서 시오야키를 그대로 사용했다.



대패고기, 간장소스, 파절이

시오야키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삼겹살 구이가 보편화된 시점은 1980년 전후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지금은 생삼겹살이 대접을 받지만 당시에는 냉동 삼겹살이 대세였다. 고기를 냉장 유통할 만큼 육류 소비도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냉동 삼겹살은 썰기도 편했다. 또 최대한 얇게 썰수록 양도 많아 보이기 마련이었다. 얇은 삼겹살의 장점은 하나 더 있다. 손님은 빨리 익어서 좋고 주인은 먹는 속도가 빠르니 좋았다. 그래서 얇게 썬 냉동 삼겹살을 대패로 깎아낸 ‘대패밥’ 같다고 대패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주삼겹살의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대패고기’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간장소스다. 소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고기를 구운 뒤에 찍어먹는 장류(醬類)를 일컫는 것이지만 청주삼겹살의 간장소스는 고기가 불판 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적시는 간장물이다. 청주 성안길에서 34년째 냉동 삼겹살집 대운불고기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희(66) 씨는 “간과 함께 맛을 내기 위해서 간장소스에 미리 담그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간장을 물로 희석한 게 아니다. 소스를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청주삼겹살의 세 번째 키워드는 새콤달콤하면서도 혀끝에서 아린 ‘파절이’다. 충북이 아닌 지역에서 삼겹살을 먹어본 사람은 파절이의 부재를 절감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파절이 대신 부추, 채 썬 양배추 등이 나온다. 파절이가 나오더라도 식초로 파채의 숨을 죽이지 않은 무침 수준이다.

청주 파절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주시지(淸州市誌)격인 <디지털청주문화대전>에도 언급이 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식생활’ 편에는 “청주는 오래전부터 삼겹살을 연탄불에 구워 먹었는데, 특히 새콤달콤하게 만든 파절이는 청주에서부터 삼겹살과 함께 먹어왔던 음식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니 고기보다 파절이가 더 유명한 집들이 있을 정도다. 마니아들은 불판 위에 대패고기와 추가 주문한 파절이를 한데 올리고 두루치기를 요리하듯 고기를 굽는다. 청주 삼겹살에 파절이가 빠지면 팔소 없는 찌뽕이다. 우리도 전주사람들처럼 청주식으로 삼겹살 먹는 법도(法度)를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고 불 일이다. 🍢



문화재단 이모저모

글 · 사진 _ 편집부



청주 꿈나무 오케스트라 위한 후원 협찬 풍성

청주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음악으로 꿈을 키우는 사업인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에 지역향토기업의 후원 협찬이 잇따르고 있다. (좌)본정은 매주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업시간에 쿠키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주 직지빵에서는 월 1회 청주 직지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는 홍소아·청소년과(원장 홍순돈), 성원 한의원(원장 안성원), 이용희 치과의원(원장 이용희), 이규영 소아과(원장 이규영), 박상록 치과(원장 박상록), 예일정신과병원(원장 조미란) 등 6개 병·의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꿈나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준비 '본격 시동'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지난 5월16일과 6월18일 두 차례 기획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공예·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운영위원회는 공예비엔날레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전시감독을 선정하는 등 행사기획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운영위원회는 충북지역 도예가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강효 호죽도에 대표를 기획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전시감독 및 행사주제 선정을 위해 기획운영위원 5명이 참여하는 '선정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획운영위원들이 전시감독 추천 후보자와 행사주제(안)를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별도 구성되는 선정소위에서 이를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소위의 심사를 통과한 전시감독과 행사주제는 향후 조직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5년 공예비엔날레를 치를 본격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 문의 : 043) 219-1021



무지개다리 사업 "얼썬 좋다! 단오 가세!"

"얼썬 좋다! 단오 가세!"를 주제로 한 단오축제가 6월 6일과 7일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2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청주시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얼썬 좋다! 단오가세!"는 창포물 머리감기, 단오부채 그림그리기, 손수건 꽃자수 체험, 아름다운 우리글 캘리 체험, 그네뛰기 등의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펼쳤다. 이와함께 증평 장뜰두레보존회와 함께 공연을 즐긴 뒤 모내기 체험을 했으며 사물놀이, 국악 공연 등의 신명나는 전통문화 한마당도 전개됐다. 수리취떡, 제호탕, 앵두화채 등 단오날에 즐겨 먹었던 음식 시식회 등을 통해 단오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주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200여명도 참여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등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었다.



2014 문화이모작 기획(실행)사업 총청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청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4문화이모작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스스로 발굴하고 고유한 특색이 담긴 문화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과정과 집중과정을 통해 작성된 사업계획서 중 심사를 거쳐 우수기획안 4개를 선정하였다. 선정자들은 문화기획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며 사업비 최대 7백만원이 지원되어 6월 16일~11월 14일까지 기획(실행)사업이 진행된다.



‘세상을 따뜻하게, 미래를 행복하게’ 가스 안전 공모전 개최

청주시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 ‘세상을 따뜻하게, 미래를 행복하게’를 주제로 한 가스안전공모전을 개최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주최하고 청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충북도청과 충북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가스안전공모전은 충북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부문은 포스터와 만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내용, 도시가스 안전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 접수처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부
우편/방문 접수
- ▶ 접수기간 : 2014.8.4.(월)~9.19(금)
- ▶ 문의 : 문화예술부 043) 219-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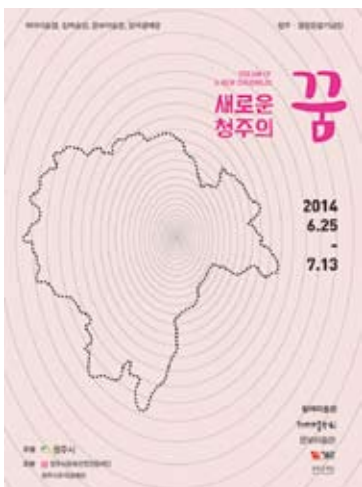


제 4회 한중일 예술명인전 성료

동아시아 공예의 전통과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한·중·일 예술명인전 ‘艺用之美(예술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다)’이 중국 상하이 창닝도서관에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및 중국 최초의 공예상품 전문 박물관인 상하이예술예품박물관과 일본 도쿄시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였으며 3개국에서 총 300여명의 작가가 참가하였다. 16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전시에 3만 2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중국의 CCTV, 일본의 NHK, 한국의 KBS 등 3개국 90여개 언론의 취재가 이어졌다. 전시 개관식과 더불어 상하이예술예품박물관과 한국공예관은 양국 공예 진흥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자매미술관 결연을 체결하였다.

- ▶ 문의 : 043) 219-1050



한국 공예관 새로운 청주의 꿈 전시회

청주와 청원의 작가 118명이 참가하는 대형전시로 청주·청원 통합 기념전 ‘새로운 청주의 꿈’이 6월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청주시한국공예관, 쉼미술관, 신미술관, 운보미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통합기념전은 지역 유일의 공립미술관인 청주시한국공예관이 기획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쉼미술관, 신미술관, 운보미술관이 공동 참여한 전시였다. 한국공예관에서는 강두원·고승관·장기영·허영애 작가 등 38명의 공예작품과 땀&땀 동아리 공동 작품, 통합 청주시민에게 희망과 소원의 글을 담아 조각보로 연결하는 시민참여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제11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청주시지역의 고유 문화원형(역사, 문화유산,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인물, 시민의 현재 일상이야기 등)을 소재로 한 미공표 이야기 창작물을 공모합니다. 창작의욕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의 많은 응모를 기다립니다.

- ▶ 공모분야 : 청주청원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창작물
(희곡, 시나리오, 대본 등)
- ▶ 출품원서 배부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cjculture.org>) /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공모전 홈페이지 (<http://st.cjculture.org>)
- ▶ 문의 : 문화산업부 043) 219-1027

‘이야기 창작발전소’ 창작집단 모집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2014년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토리텔링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이야기소재로 스토리를 창작하고 콘텐츠를 생산 할 창작집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 모집대상 및 인원 : 스토리텔링 및 지역이야기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및 학생
- ▶ 교육내용 : 지역이야기 소재교육, 전문스토리작가에 의한 스토리텔링 교육, 집단 창작 세미나를 통한 스토리 창작
- ▶ 문의 : 문화산업부 043) 219-1027



10월의 글로벌공예장터 ‘2014청주국제공예페어’참여 작가·업체 모집

2014년 10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비엔날레 전시장 2층과 야외 광장에서 개최될 ‘2014청주국제공예페어’의 참여 작가·업체 등을 모집한다. 국제적인 공예유통전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어는 생활 공예와 진화하는 공예를 엿 볼 수 있는 기획존, 공예품 판매 또는 구매하는 산업공예존, 벼룩시장과 난장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존과 같이 총 3개의 섹터로 구성되며 다양한 공연과 공예체험 등 이색적으로 전개된다. 페어 참여를 원하는 작가·대학·갤러리·업체 등은 홈페이지(www.okcj.org)를 통하여 오는 8월 1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문의 : 비엔날레부 043) 219-1024

통합청주시 문화예술 소식&리뷰

클 _ 김민정

올해 충북의 가장 큰 변화는 '청주·청원 통합'이다. 통합 청주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청주·청원 예술인들이 '새로운 청주'에 대한 희망을 예술에 담아 선보인다.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고 한다. 지역을 넘어 소통하고 어우러지며 발전해나갈 통합 청주시의 문화 청사진을 상상하며 '새로운 청주'를 이끌어나갈 예술인들의 장을 감상해보자.



7 MONTH
26 DAY

장소: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청주 국악’ 지역 넘어 세계로
청주시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 ‘K-MUSIC 淸’
국내 최초 ‘K-MUSIC’ 음반 제작·출시

청주 국악이 지역을 넘어 ‘국악 한류’의 중심을 꿈꾼다. 청주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한진)이 국내 최초 ‘K-MUSIC’을 선보인다.

오는 7월 26일 오후 5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청주시립국악단 특별기획공연 ‘K-MUSIC 淸’.

시립국악단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인이 공유 할 수 있는 ‘K-MUSIC’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국내 시장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에버모어 녹음실에서 가야금, 해금, 피리 등 한국 고유 국악기를 대거 동원해 단원들과 함께 음원 녹음을 마쳤으며, 청주에서 3월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음악으로 차별화된 한류를 이끌기 위한 ‘K-MUSIC’의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청주시민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

또 음반 수록곡을 중심으로 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참여로 융합무대를 마련하고 피아노, 노래 협연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K-MUSIC’은 청주를 소재로 한 ‘The Wind from C’를 작곡해 청주 무대에서 선보인 바 있는 작곡가 김의석씨와 이지수, 이수정, 고훈, 송하민 등 국내 유능한 아티스트가 제작에 참여했다.

음반에는 모두 12곡이 수록됐다. 청주를 소재로 한 ‘The Wind from C’, 무심천을 표현한 ‘Heart River’, 청주의 관문 가로수길을 그린 ‘Green Gate’,

청주 중앙공원의 1천년 된 은행나무를 소재로 한 ‘Soul Tree’ 등 청주를 담은 4곡이 포함된다.

작곡가 김의석씨는 “음악을 만들 때 ‘한국적으로’를 강요하지 않고, 마치 된장찌개에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만든 음악이 그게 바로 K-MUSIC 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가요와 국악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새로운 시도로 국내 및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음악시장에 우리 국악의 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의 043) 200-5202~5



6 MONTH
13~9 MONTH 9 DAY

장소: 오창 호수공원

충북문화재단, 우리가락 공연 13일 개막...9월9일까지

“매주 재미와 감동으로 펼쳐지는 국악의 향연에 빠져보세요.”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청주해금앙상블이 주관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이 6월 13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창 호수공원에서 펼쳐진다.

매회 1천여명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공연은 ‘즐거움 토크! 소통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통과 퓨전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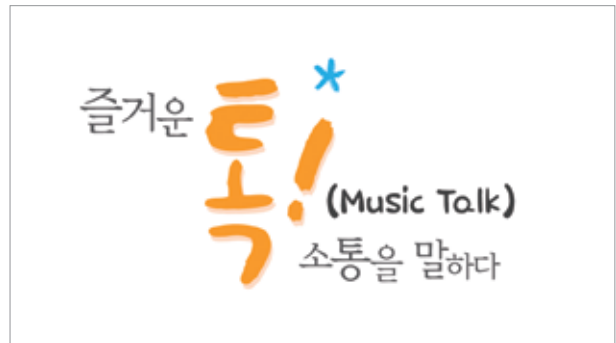
또 공연 1시간 전에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은 인기 만점이다. 해금배우기, 국악기 제작과정 체험, 단소 만들기, 가야금 미니어쳐 만들기, 전통 꽃잎차 시음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7월 19일 국악전문연주단체 ‘해울’과 신진예술가 젊은 국악인 ‘이중빈’ 7월 26일 10인의 남성들로 구성된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 등을 만난다.

또 △8월 2일 불세출, 씨알누리 △8월 9일 수원예시보존회, 서원국악실내악단 △8월 16일 씨티엔터테인먼트, 신진예술가 손정화 △8월 23일 신진 예술가 김민정, 모란한국무용연구회 △8월 29일 퓨전국악밴드 ‘쉴름’ △8월 30일 퓨전국악밴드 Word Music Band ‘AUX’ △9월 9일 퓨전국악 공연 ‘청주해금앙상블’이 준비돼 있다.

우천시 공연은 취소되며, 해당 공연은 9월초 기획공연으로 대체된다.

문의 010-6433-5997



아쉬움 가득한
‘수암골’ 예술 소통

전쟁의 아픔을 겪은 피난민들의 정착촌 수암골 담벼락에는 물감을 풀어 놓은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그려지고, 하나 둘 예술가들의 발길을 붙잡아 예술촌이 생겨나고, 어느덧 ‘예술’의 향기는 어두웠던 역사의 아픈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다.

수암골에 터를 잡은 ‘수암골 예술촌’ 작가들의 수암골 역사를 담은 시부터 초상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인 ‘수암골 스토리 작가화전’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달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수암골예술촌 총장 일오 박효영(민화명인), 박외수(서경·서각명인), 김만수(토우), 박소영, 김정숙, 한미, 이수진(서양화), 고용주(수채화), 박소영(시인), 박준덕(사진), 박정수, 안의종(조소), 김중철(서예), 정대옥(전통다례), 윤여정(잡공예), 양경인(제빵체험), 오일록(바리스타체험) 등 1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왕이 사용했다는 일월오악도의 위용 넘치는 8폭 병풍과 한지 분채의 전통 민화, 서정적인 맑은 수채화의 멋, 붓이 한바탕 춤을 춘 것 같은 서예와 서각의 멋스러움, 감성 넘치는 서양화의 기품 등 다양한 분야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다.

우암산 기술에 자리한 수암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겹게 잘 표현한 박소영 시인의 시 ‘수암골’을 시작으로 클림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꿈’은 아이를 겨냥은 여성의 모습을 따스하게 담아냈다.



박준덕 사진작가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사진 촬영으로 수암골의 모습을 담은 풍경사진을 선보이고, 귀여운 딸과 수암골 벽화의 절묘한 조화를 담은 재미있는 사진들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절로 부른다.

신진작가들부터 중견작가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았다.

박효영 수암골 예술총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수암골을 널리 알리고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첫 전시회를 기획했다’라는 기획 의도와는 달리 전시는 수암골이 아닌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인기가 시들고 관광객들의 수가 줄어들자 수암골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지난해 ‘예술촌’을 조성했다. 현재 18명의 예술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마땅한 전시관이 없어 다른 곳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암골 예술촌’이라 해서 반드시 수암골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원칙은 없지만, 일부 몇 작품에서만 수암골을 만날 수 있었다. 다른 전시에서 볼 수 없는 수암골이 예술과 만나서 이뤄지는 특별함을 보고 싶었던 기대는 충족이 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꼬불 꼬불 좁은 골목길마다 묻어나는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예술로 승화해 다음에는 낯고 허름한 담벼락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탄생되듯 수암골과 만난 예술촌의 개성을 만나고 싶다.

E 8 MONTH ~31 DAY

장소: 청주시한국공예관

여름맛이 부채전
‘바람 바람 바람’



여름철 더위를 씻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채전이 열린다.

청주시한국공예관은 2014 여름맛이 부채전 ‘바람 바람 바람’을 8월 31일까지 1층 아트숍에서 진행한다.

이번 부채전에는 민화부채, 직지부채, 손글씨 부채, 사군자 부채, 반달부채, 버섯모양부채, 접이식 부채, 한지 부채, 실크부채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부채를 만날 수 있으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부채 속에 담겨있는 글과 그림의 멋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부채를 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먼지 같은 오물을 날려 청정하게 하므로, 재앙을 물고 오는 액귀나 병을 물고 오는 병귀같은 사(邪)도 쫓는다고 믿었다.

옛날에는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속이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채를 염병을 쫓는 부채라는 뜻으로 벽온선(辟瘟扇)이라고 일컬었다.

우리 선조들은 또 악마를 쫓고 신명을 부르는 곳에서도 부채는 필수인데, 이때 부채는 싯된 것을 쫓고 신을 부르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 여겼다.

한국공예관 전시 담당자는 “여름은 더위로 자칫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계절이어서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부채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람객들에게 꽃이 그려진 부채를 부치면 부채 속의 꽃향기가 전해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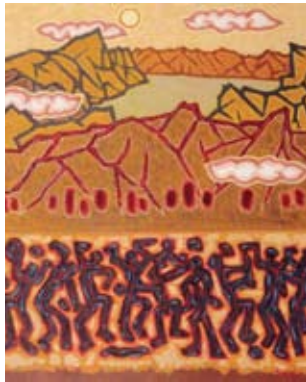
문의 043) 200-2235

E

8 MONTH ~3

장소: 갤러리 청주

개관 1주년 기념전
‘획을 굿다’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갤러리 청주’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해 현대 미술의 획을 굿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감상하고, 미술 애호가들이 손쉽게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한국 현대미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갤러리 청주 개관 1주년 기념전 ‘획을 굿다’가 8월 3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현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부터 실험적인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회화 정신과 기법 발견에 도전하는 신진작가들까지 세대를 초월해 만나 볼 수 있다.

윤보 김기창, 장두건, 정건모, 민경갑, 서세옥 등 한국 거장들의 주옥같은 소장작품과 이한우, 강호생 등 20여명의 소속작가 그리고 5명의 젊은 초대작가와 이대원, 김환기, 천경자 등 한국 현대미술 유명작가 판화, 일본에서 인쇄된 피카소의 판화 등 80여점이 다채롭게 전시된다.

소장작 및 소속작가는 강지수, 강호생, 공영석, 박석순, 김기창, 김무호, 김순남, 김영철, 김인화, 김정호, 김춘식, 김춘옥, 민경갑, 박노수, 박병준, 서세옥, 송용, 송영명, 신범승, 심웅택, 양태석, 오승윤, 우희춘, 유시원, 유필근, 이병석, 이승오, 이태길, 이필연, 이한우, 장두건, 정건모, 하철경, 홍병학 등이며 초대작가는 김미향, 손순옥, 손정순, 에밀리영, 이홍원, 판화작은 권옥연, 김환기, 민경갑, 유영국, 이대원, 이중섭, 장두건, 천경자, 피카소, 앤디워홀 등이다.

특히 동양화의 수묵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심오한 깊이와 재료의 물성과 외부와의 접합으로 연출되는 우연과 필연의 언어들을 파헤치는 강호생의 ‘생명’, 물 위에 그린 그림을 통해 원래의 그려함 속에 참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에밀리영 등 독창적인 작품들은 주목할 만하다.

전시와 함께 ‘그림 값은 비싸다’는 통념을 깬 합리적인 가격대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가의 작품부터 떠오르는 혜성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 마음과 주변을 화사하게 빛내줄 신진작가들의 작품까지 총망라돼 미술 애호가들의 컬렉션을 위한 최고의 전시를 만든다.

갤러리 청주 관계자는 “현대미술사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시인 만큼, 평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 더 없이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43) 237-9101

E

8 MONTH ~16

장소: 우민아트센터내 카페우민

2014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문영민 ‘관계의 감각’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남에게 공격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 하는 인사’를 뜻하는 절은 주로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의식처럼 행해진다. 산사람에게 하는 절은 ‘공경’의 의미를, 죽은자에게 하는 절은 ‘애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절’ 문화다. 그래서 30여년의 타국 이민생활을 한 미술작가의 눈으로 담은 ‘절’ 문화가 더욱 궁금하다.

오는 8월 16일까지 우민아트센터내 카페우민에서 펼쳐지는 2014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네번째 전시 문영민 작가의 ‘관계의 감각’.

문 작가는 절하는 모습을 담은 연작을 선보인다. 절하는 행위가 친숙하고 잘 아는 것이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정말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작업을 통해 묻는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주제로 변주를 만들지 않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한 부분, 즉 누군가를 기억하는 행위, 애도의 행위, 죽음의 묵상을 회화라는 반복적인 실천으로 융합한다.

문 작가는 “이민 직후 부모님과 살 때에는 제사를 지냈으나 독립하면서 연제부턴가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다. 소식적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나 기억도 나질 않는 조부모와 여러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염원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곤 했다”며 “부친의 묘가 있는 토론토 교외 가톨릭 공동묘지 주위 주택가가 있는데 부친 묘에 절을 할 때 멀리 주택의 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의 캐나다인들이 나의 가족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자의식을 느끼기도 했다”며 유년시절 인상 깊게 각인된 기억의 조각들이 작품의 시작임을 알렸다



절하는 모습의 그림들은 절하는 순간의 염원들은 담지 못하고 행위의 모습인 외적인면에 불과하다. 그는 이러한 한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은 하나같이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절은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절을 하는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 뒷모습의 인물들은 비 한국인 또는 절이라는 예절과 친숙하지 않은 한국인에게 이국적인 느낌을 풍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문 작가는 “절을 통한 염원은 왠지 한번의 행위로만은 부족하다는 듯이, 반복을 통해서 그 불가능성과 실패를 극복하려는 시도일지 모른다. 오랜 기간 동안 회화에 대한 애증을 가졌던 내가 다시 회화를 실천하기위해서 나는 반복하는 절 행위를 회화를 통해 반복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죽은 자의 모습을 재현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에 대한 묵상을 발현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반복적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절’의 본질적 고민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행하는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깨워주는 전시가 될 듯 싶다.

한편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은 우민아트센터 부대시설인 카페우민의 공간을 지역 및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 및 프로젝트 공간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43) 222-0357

매거진 에필로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매거진 <씨아트-Art>에 담고 싶은 이야기나 바라는 점, 구독후기를 보내주세요. 더 좋은 <씨아트-Art>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Tel] 043) 219-1017
[Fax] 043) 219-1234
[e-mail] ohhi3730@naver.com
[홈페이지] www.cjculture.org
[SNS] www.facebook.com/cjculture1

